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과 실천을 위한  
노력 및 어려움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혜연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과 실천을 위한  
노력 및 어려움

배 지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혜연


# 인 준 서

박혜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5월

심사위원장 전 홍주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김 고 은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배 지희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혼합연령반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과 실천을 위한 노력 및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령반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존중보육의 실제 및 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혼합연령반 권리존중보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과 실천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2. 혼합연령반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2021년 5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혼합연령반의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면담노트,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저널, 어린이집 운영 안내 책자 등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아교육 전문가 1인, 연구 참여자 2인, 유아교육 석사 학위를 소지한 교사 2인에게 심층 면담 결과를 범주화한 자료를 보여주고 연구 내용을 검토받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혼합연령반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생존권, 참여권, 발달권을 중심으로 권리존중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혼합연령반 교사는 보육 속에서 유아의 생존권, 참여권, 발달권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사의 적극적인 보호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활동 시간을 운영하고, 유아들의 개별적인 요구가 반영된 급·간식시간과 낮잠 시간을 운영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일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과 장소를 점검하여 유아가 생활하는 공간과 일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혼합연령 유아의 의사소통을 도우며 평등한 위치에서 유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와 교육을 통해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여 서로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각 연령의 발달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놀이와 활동을 계획하고, 교재교구를 제공하여 유아의 발달권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둘째,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생존권, 참여권, 발달권이 보장되는 보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천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주로 부모의 요구

와 관련되어 있었다. 특정 연령의 부모가 유아에게 낮잠 시간이 불필요하다고 여기거나, 자녀의 식사 습관에 따라 개별적인 식단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경우에 교사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간식시간과 낮잠 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의 생존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실천 과정에서 교사와 원장의 다른 가치관과 교사 개인이 바꾸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전통과 분위기, 유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특별활동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관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실천 과정에서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수업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보육 이외의 기타 업무가 많으며 혼합연령에 대한 교사 교육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꼈다. 이에 따라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혼합연령반 교사가 참고할만한 지침서나 보육 활동 자료집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혼합연령 발달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법에 관한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8
3. 연구자 .....	9
II. 이론적 배경 .....	11
1. 영유아의 권리 .....	11
1) 영유아권리의 개념 .....	11
2) 영유아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 .....	14
2. 권리존중보육 .....	19
1) 권리존중보육의 개념 및 중요성 .....	19
2) 교사의 권리존중보육 실행 .....	22
3) 교사와 권리존중보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	26
3. 혼합연령반 .....	28
1) 혼합연령반의 개념 및 현황 .....	28
2) 혼합연령반의 교육적 효과 .....	32
3) 혼합연령반 교사의 역할 .....	35

<b>Ⅲ. 연구 방법</b> .....	41
1. 연구 참여자 .....	41
2. 연구 절차 .....	46
1) 예비연구 .....	46
2) 본 연구 .....	47
3. 자료 분석 .....	51
4. 연구의 신뢰성 확보 방안 .....	55
<b>Ⅳ. 연구 결과 및 해석</b> .....	57
1.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과 실천을 위한 노력 .....	57
1)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보육: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운영하기 .....	57
2) 유아가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보육: 유아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교실 만들기 .....	69
3) 유아가 주도하여 놀이할 수 있는 보육: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	81
2. 혼합연령반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	93
1) 유아의 건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 .....	93
2) 유아의 의사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 .....	98
3)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 .....	104
<b>Ⅴ. 논의 및 결론</b> .....	111
1. 논의 .....	111

2. 결론 및 제언 ..... 124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 .....	42
<표 2> 심층 면담의 질문 내용 .....	50
<표 3> 분석된 자료 .....	52
<표 4> 범주화 수정 과정 .....	53
<표 5> 연구 문제에 따른 범주 분석 최종 내용 .....	54

## 그림 목 차

[그림 1] 혼합연령반 계획안 1 .....	87
[그림 2] 혼합연령반 계획안 2 .....	8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즉 인권을 가진다. 인권(human rights)이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자격과 지위를 뜻하는 개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문(1948)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영유아에게도 인권이 지켜져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예우도 갖춰져야 한다. 즉, 영유아는 자율적인 존재로서 영유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스스로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유아의 권리는 성인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황인애, 봉진영, 권경숙, 2017). 즉, 영유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성인은 영유아를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결정권자로서 존중해야 하고,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영유아기는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영유아기의 초기 경험은 영유아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2011). 따라서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기부터 권리가 지켜져야 하며,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영유아 권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사회적으로 영유아의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영유아의 권리를 위한 세계적인 약속은 1989년 11월 20일 UN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따른 인권조약인 UN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영유아와 우리나라의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쳤다. UN아동권리협약은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유아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제1조부터 42조까지 실제적인 영유아권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제43조부터 54조까지는 협약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되고 2년 후인 1991년 11월 20일에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 제44조(국가보고서 제출)에 의하여 조문별 이행사항,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속에서의 노력을 비롯하여 국내의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거치며 영유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영유아가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도입 및 개편, 아동권리지침서 제공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지켜지며,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 민감성 향상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영유아교육에서의 영유아권리존중은 영유아를 평등하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영유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 한다(황인애, 봉진영, 권경숙, 2017). 서영숙 외(2009)는 권리존중보육이란 영유아가 건강과 안

전을 지키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보살피고 교육하는 보육이라고 정의 내렸고, 국가인권위원회(2015)에서는 권리존중보육을 영유아를 외부의 위협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광범위한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게 하는 보육으로 정의하였다. 즉, 권리존중보육이란 영유아가 건강 및 안전을 보장받고,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살피고 교육하는 보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영유아가 보육기관에 재원하는 연령이 하향화되면서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2021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76.1%이고,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12분으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점차 가족 구조가 축소되면서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또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증가하였다(김은주, 장선화, 2013).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영유아가 어린 시기부터 기관보육을 경험하고,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행하는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권리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사의 개인적 자질과 스트레스 등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탐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권리를 바탕으로 권리존중보육에 관해 탐구한 연구는 보육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중점으로 권리존중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송지희, 2020; 이경희, 2018; 장연정, 2020), 유아의 권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권리존중보육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태운, 김미숙, 2018), 교사의 아동권리존중인식과 교사의 권리존중보육 실

행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정동재, 김진옥, 2021)가 있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사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이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하여 권리존중보육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유아의 권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사의 개인적인 자질을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행복감이 높을수록 영유아에게 양질의 상호작용이 나타나 권리존중보육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고영운, 신현정, 2018; 고효주, 김혜순, 2020; 송지희, 박수경, 202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영유아 권리존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권리존중보육 실행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김신애, 2018; 김수연, 2014), 자존감이 높은 보육교사가 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어 권리존중 실행이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김세곤, 김주영, 2019)가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송지희, 2020; 이영주, 2017), 심리적 안녕감(이지선, 2018),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안나영, 2020; 엄상희, 2021)이 권리존중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가 있다. 위의 연구들은 공통으로 어린이집에서 권리존중보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과 개인적 자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는 점점 축소화되고 있어 영유아는 제한된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가 2020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1970년 대비 절반 이하의 수치이며 2000년 대비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가족구조가 축소되고 외자녀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영유아가 가정 내에서 사회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하기 어렵게 되

었다. 따라서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대안적 교육방법으로 영유아의 연령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혼합연령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혼합연령학급이란 나이가 가장 어린 유아와 많은 유아의 차이가 12개월 이상 또는 24개월 이상의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학급을 말한다(Freedman, 1982). Katz, Evangelou와 Hartman(1990)은 혼합연령 학급은 유아들의 연령 범위에 일 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경험, 지식, 능력 및 기술에서도 다양한 수준을 보여주는 유아들로 구성된 학급이라고 정의하였다. 혼합연령반의 유아들은 단일연령반에서 경험하기 힘든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할 수 있고,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천승주, 2015). 또한, 유아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유준호, 2006), 다양한 연령 층 유아들의 욕구와 관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할 수 있기에 풍요로운 집단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아와 유아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명환, 2014). 즉, 다 연령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혼합연령반은 유아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학급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혼합연령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혼합연령반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혼합연령반에 대한 연구는 혼합연령반의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한 연구(윤소연, 박혜준, 2019), 혼합연령 유아들의 관계 형성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연구(유준호, 홍용희, 2006), 혼합연령반의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유영란, 이승연, 2020), 혼합연령 유아 간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한 연구(정우란, 2021) 등 주로 영유아가 혼합연령반에서 경험하는 또래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혼합연령반과 단일연령반의 조망수용능력과 자기중심언어를 비

교환 연구(김희자, 2002), 혼합연령반과 단일연령반의 발달 수준이나(백은정, 2013), 놀이성에 따른 혼합연령과 단일연령의 놀이행동을 비교한 연구(김명순, 유정은, 이민주, 조향린, 2011), 혼합연령반과 단일연령반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언어를 비교한 연구(홍금주, 2003) 등 혼합연령반과 단일연령반을 비교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혼합연령반 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합연령반의 개선 방안을 탐색해본 연구(송지현, 2019), 단일연령반 교사와 비교하여 혼합연령반을 운영하는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본 연구(김다해, 2008), 혼합연령반 교사가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 경험하는 어려움을 다룬 연구(배지희, 김은혜, 2012)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에서 서로 다른 연령의 유아가 가지는 권익을 보호하며 지도하고, 혼합연령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등 단일연령반 교사와는 또 다른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권리존중보육을 운영함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권리존중보육의 실행과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개별적인 발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권리존중 실행의 어려움을 겪으며(최은혜, 2017), 바쁜 일과 속에서 과도한 교사의 업무와 교사 대 아동의 높은 비율로 인해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영, 구은미, 2016). 또한 김명희(2010)는 교사의 담당학급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적인 부분의 실행이 많아져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영유아 월령의 편차, 영유아의 개인차, 수업 준비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사가 보육과정을 실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향자, 2010; 정지현, 2004).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단일연령반의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혼합연령반을 교사로 대상으로 한 권리존중보육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권리존중보육 실행에 대한 어려움과 요구를 다룬 연구(황인애, 봉진영, 권경숙, 2017)가 있지만, 실제로 혼합연령반을 운영하는 담임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았을 때,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영유아를 능동적 존재로 인정하고, 영유아의 의사를 반영하고, 발달에 맞는 교육을 통해 영유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계획하고 일과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진숙, 2009). 하지만 혼합연령반 교사는 다양한 연령의 발달 차이를 고려하는 교수·학습방법과 일과운영에 어려움을 겪고(배지희, 김은혜, 2012), 수업준비시간의 부족과 담당 학급 유아의 수준 편차로 인하여 단일연령반 교사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다해, 2008).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인식과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심층적으로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혼합연령반에서 실질적인 교사의 교육계획 및 보육과정, 일과운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교사와의 면담을 통한 실제 사례 중심의 조사가 필요하다(김다해,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혼합연령반 교사가 경험하는 권리존중보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과 실천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혼합연령반을 담당하는 교사가 혼합연령반에서 나타나는 영유아 권리를 인

식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교사가 혼합연령반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과 실천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2. 혼합연령반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3. 연구자

본 연구자는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직장 어린이집에서 만 3~4세 혼합연령반 담임을 맡게 된 경험이 있다. 만 3~4세 혼합연령반은 만 3세와 만 4세 유아와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반으로, 교사가 두 연령의 유아를 동시에 고려해서 일과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다. 혼합연령반의 계획안을 작성하고, 일과운영의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연령과 기준에 맞춰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였다. 보육지원재단에서 발행된 혼합연령반의 프로그램에 관한 참고서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혼합연령반 교사가 보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지도방법에 대한 지침서와 교육은 미비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혼합연령반을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혼합연령반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어린이집의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만 3세 유아와 만 4세 유아와 함께 일과를 보내는 적응기간에 유아의 연령과 발달 차이로 인하여 혼합연령반 교사가 각 유아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관찰하였다. 예를들어 혼합연령반의 급식 시간에 혼합연령 유아 간의 식사 습관과 식사 속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혼합연령반 교사는 급식 시간 다음의 일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식사 속도가 느린 유아의 식사 시간을 온전히 존중해주지 못하였다. 연구자는 급식 시간에 온전히 식사 시간을 누리지 못한 유아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유아가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권리인 생존권을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혼합연령반에서 윗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특성화 프로그램에 아래연령의 유아도 흥미를 보이며 혼합연령반 교사에게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특성화 프로그램은 윗연령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아래연령 유아는 참여할 수 없었

다. 연구자는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아래연령 유아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교실 속에서 유아가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인 참여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외에도 연구자는 혼합연령반 교사의 일과 운영 속에서 유아 개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고, 혼합연령반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권리존중보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들이 계기가 되어 본 연구자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보육과정을 운영할 때 연령이 다른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혼합연령반 교사가 연령이 다른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떠한지 탐색해보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영유아의 권리

#### 1) 영유아 권리의 개념

영유아의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영유아 권리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영유아의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항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로 명시하고 있고, 유아교육진흥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 전까지의 아동을 유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출생 후부터 6세 미만의 사람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출생에서 취학이행기까지를 포함하는 출생 이후 8세까지를 영유아기로 정의하고 있다(윤매자, 2010).

대한민국 헌법 제2조 10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은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처럼 영유아도 인간이 가지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능력이 할 모든 권리를 가진다(최은혜, 2017).

영유아의 기본적 권리는 UN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의거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권은 영유아가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안전한 주거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며,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둘째, 보호권은 영유아가 모든 형태의 차별, 학대, 방임, 폭력, 과도한 노동 등의 위협과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

호받을 권리이다. 셋째, 발달권은 영유아가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여가를 즐기고, 생각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이다. 넷째, 참여권은 영유아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으며, 유익한 정보를 얻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더 나아가 영유아의 권리는 인간이 가지는 절대적인 권리와 더불어 영유아만이 가질 수 있는 생애 시기적 특수성을 포함하여(류수정, 2012)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즉, 영유아의 권리는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행사하기 어려워 성인이 될 때까지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

영유아가 가지는 구체적인 권리는 참여, 보호, 제공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이재연, 1996; 장인협, 오정수, 2000), 기본적 권리, 자유의 권리, 평등의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로 6가지의 항목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이명준 외, 2000; 김안나, 2014). 먼저 영유아가 가지는 권리를 ‘참여’, ‘보호’, ‘제공’의 개념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재연, 1996; 장인협, 오정수, 2000). ‘참여’는 영유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 알고 의사결정 할 권리를 말한다. ‘보호’는 곤란한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제공’은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을 받고 건강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장인협, 오정수, 2000). 즉, 영유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삶에 참여하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영유아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유아의 권리를 6가지 항목인 기본적 권리, 자유의 권리, 평등의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명준 외, 2000; 김안나, 2014). 첫째, 기본적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생명존중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아가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할 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권리이다. 이는 영유아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타인을 수용하며, 자신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보호하고, 자연의 가치를 알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명준 외, 2000). 둘째, 자유의 권리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나, 자유에는 개인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심정보, 2000). 셋째, 평등의 권리에는 공정한 생활 태도, 법과 규칙 지키기, 약속과 규칙 지키기, 타인의 권익 존중의 내용이 포함된다. 즉, 약속, 규칙, 법 등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평등의 권리에서는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시된다(정미라, 2003). 넷째, 경제적 권리에는 직업 선택의 권리, 물건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기, 소비자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을 통해 형성된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권리이다(김숙자 외, 2009). 다섯째, 사회적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개인이 사회에 요구할 수 있고, 사회는 개인을 위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권리이다. 즉, 모든 유아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신과 신체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정미라, 2003). 여섯째, 정치적 권리에는 의견 표현의 자유, 합리적 의사 결정,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적 권리는 정치에 참여할 기회와 참정권을 누릴 권리를 말하며 유아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김숙자 외, 2009).

이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의 권리는 영유아가 주체로서 인간이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영유아의 권리는 영유아의 생애 시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인으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 2) 영유아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

본 절에서는 영유아를 포함하는 아동의 범위내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적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은 지난 역사에서 미성숙한 존재이며 사회적인 약자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17세기 이전에 유럽에서는 성인 중심사회로 아동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따로 구분 짓지 않았으며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로 여겼다. 그러나 18세기 유럽의 계몽사상 이후 1920년대 초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백혜리, 2006). 아동의 권리를 세계 최초로 선언하여 국제연맹을 통해 채택된 ‘제네바 선언(1924)’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아동을 질병, 영양실조, 고아 등 전쟁의 희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언문이다. 제네바 선언에서는 “아동의 신체 정신적인 면에서 발달에 필요한 모든 수단이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굶주린 아동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병든 아동에게는 치료를 제공하고, 고아에게는 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이 위험에 처할 경우 가장 먼저 구제받아야 한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아동이 지닌 재능의 계발이 인류에게 공헌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양육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태수, 1991). 제네바 선언문은 국제적 차원에서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인류의 미래임을 확인한 것으로(고재운, 1997), UN의 아동권리선언(1948)이 있기까지 국제연맹이 따

라야 할 원칙으로 여겨왔다.

국제연맹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의 채택을 시작으로 1946년 UN 어린이 긴급기금이 창설되었다. 이후에도 1959년 UN은 제네바 선언을 검토하여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선언’을 제14차 UN 총회에서 채택하였다. 아동권리선언은 ‘차별 금지와 동등한 권리 보장’, ‘아동의 특별 보호 및 성장을 위한 최선의 이익’, ‘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권리’, ‘장애아의 사회적 보호’, ‘물리적 도덕적 환경이 보장된 가정에서 자랄 권리’,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우선적으로 보호 받고 구제받을 권리’, ‘학대와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박정은, 2014).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천명한 선언으로써 아동을 단순한 구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 행사의 주체로서 인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아동권리선언 이후 UN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아동권리국제협약(1989)’을 발표 및 채택하였다.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아동권리국제협약은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아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제인권협약으로, 협약국가에 대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실질적인 아동권리 보장을 규정하였다. UN아동권리국제협약은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과 이행 당사국의 이행 보고서에 대한 지침 및 협약 홍보에 대한 의무, 가입과 유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보건복지부, 2016).

UN아동권리협약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는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아동권리의 4가지 일반원칙을 명시하였다. 첫째, 비차별의 원칙은 모든 아동이 성별, 피부색, 언어, 출신,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아동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은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은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아동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적인 노력은 아동을 미성숙한 약자로서 성인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닌 한 인간으로의 존엄을 지키는 삶을 위해 적극적인 의미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하게 되었다(이진화, 2014).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아동은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 부모의 예속물이나 자산으로 인식되었다. 성인은 아동을 다스리고, 아동은 성인을 섬기며 아동의 고유한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성인은 아동에게 아동답게 자라지 못하게 하고 점잖음을 강조하였다(이재연, 1996). 그러나 1923년 5월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소파 방정환에 의해 아동권리 공약 3장이 처음으로 명시되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 문학가를 중심으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선전문의 내용 중 아동권리 공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어린이들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 둘째,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셋째, 어린이가 고요하게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한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민윤식, 2014)이다. 이 3개 항에는 아동의 인권과

아동답게 지낼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후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는 어린이는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고른 영양을 취하고,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고, 유익한 놀이를 제공받고, 서로 돕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90년 UN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에 비준함으로써 UN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권리실태를 조사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문화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2년 이내에 자국의 아동권리에 관련된 상황과 협약이행 실태를 담은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5년에 한 번씩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2월 22일, 제5·6차 UN아동권리협약 이행 한국 국가보고서를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8), 2019년에는 1996년, 2003년, 2011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심의받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아동복지법에도 점차 변화가 발생하였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유아의 권리를 발전시키고자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특히 2016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며 부모,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다. 아동권리헌장에는 UN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을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모든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인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아동권리헌장에는 영유아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학대와 방임 등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연령이나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

지 않을 권리,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과 주거를 지원 받을 권리, 아동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다양한 놀이에 자유롭게 즐겁게 참여할 권리,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6). 즉, 아동권리헌장은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면서 성인 역시 영유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국가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이경희, 2018).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에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과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은 영유아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과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의 권리는 국제연맹의 제네바 선언(1924)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공약 3장(1923)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국제법으로 규정하며 영유아의 권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UN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제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하여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권리존중보육

### 1) 권리존중보육의 개념 및 중요성

‘권리존중보육’이라는 용어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아동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용 교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보육교사용 자료집을 개발한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 보육교사의 아동권리교육용 교재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가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되기 쉬운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부터 제작되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따뜻하게 보살피주고(이재연, 2015),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영유아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은 보육 속에서 영유아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 의견이 보육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함께 나누며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영유아가 행복하게 발달하도록 교육하는 공적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서영숙 외, 2009; 이진화, 2014). 즉, 권리존중보육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앎을 보육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영유아의 4가지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것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09).

이외에도 권리존중보육의 개념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은 영유아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교환하여 창조적으로 사고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천다래,

2016), 영유아의 자율적인 생각을 존중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경미, 2009), 영유아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되고 실현되는 일상을 누리는 보육(송지희, 2020)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육 속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영유아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격려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으로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보육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기는 성장과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김진숙, 2009),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시기이다. 또한, 영유아는 일과 속에서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흥미와 발달 특성에 맞는 놀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존재로서(류수정, 2012) 성인의 보살핌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는 영유아의 권리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서미자, 2019).

이처럼 국가적으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책무와 더불어 보육기관에서 일과를 보내는 영유아가 많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권리가 중요해졌다. 더불어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아직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서영숙, 2010) 보육교사로부터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권리존중보육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경험한 보육은 영유아의 정신과 신체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영유아기에 권리를 존중받은 경험이 있는 영유아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높고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리존중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3). 둘째, 영유아기는 자아개념, 타인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는 시기로 권리존중을 경험함으로써 영유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 판단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김숙자 외, 2003). 셋째,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기능이나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핵가족화, 한 자녀 출산 및 양육 가치관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영유아는 이른 시기부터 보육기관을 경험한다. 따라서 부모들은 보육기관과 주된 양육자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이에 보육교사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함으로써 영유아 최선의 이익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가정의 양육을 지원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존과 성장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서영숙, 2010). 넷째, 4차산업 이후 급격한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영유아는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될 수 있고 가상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체험학습, 신체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감소한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로부터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영유아의 발달 능력에 맞는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여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권리와 적절한 발달을 위한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김진숙, 2009). 다섯째, 세계화 속에서 영유아가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타인과 소통하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김진숙 외, 2006).

이처럼 영유아기는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로 권리존중보육은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민주시민의 기초를 돕는다. 보육교사는 영유아권리의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핵심인력이므로(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1995)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영유아의 권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며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일과를 진행하기 위한 자세와 노력이 요구된다.

## 2) 교사의 권리존중보육 실행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보육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육교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아정책연구소(2009)에서는 보육교사를 위한 아동권리존중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와 복지’를 필수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하고(한국보육진흥원, 2021), 장기미종사자 교육과 승급교육에서도 영유아 권리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보내는 영유아들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질 높은 보육과 개별화된 보육이 강조되고, 더 나아가 부모 다음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교사의 권리존중보육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은 영유아의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을 보장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해 영유아가 교육기관에 등원하는 순간부터 급·간식시간, 실내 자유놀이 시간, 휴식시간 등의 모든 일과 중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며 보육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5; 서영숙 외, 2009a).

먼저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영유아를 위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보호하며,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교육을 하여 영유아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존중할 수 있

다(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5).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영유아의 자리를 정해주지 않고 영유아가 직접 앉고 싶은 자리에 앉도록 하여 영유아의 참여권을 존중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상태에 맞는 상호작용을 하고 지도하며 영유아의 발달권을 존중할 수 있다(김진숙, 2009).

다음으로 교사의 어린이집 일과를 중심으로 한 권리존중보육 실행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등하원시간에 교사는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하며, 영유아의 일상적인 등·하원 상태와 모습을 잘 파악하고 있다. 급·간식시간에 교사는 영유아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여유 있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도록 한다. 보육과정 및 활동시간에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움을 얻고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영유아의 개별적인 관심과 표현을 존중하며 영유아의 흥미와 발달 정도에 맞는 보육과정을 운영한다. 휴식시간에 교사는 영유아가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영유아에게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서영숙 외, 2009a).

이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되는 보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는 영유아를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여 영유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영유아의 흥미, 발달, 능력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계획과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귀가하는 모든 일과 속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실행해야 하며, 영유아의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이 영유아 최우선의 이익의 관점 따라 일과를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영유아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다.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질 높은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함으로써 영유아의 고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교사의 권리존중보육 실행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첫째, 교사는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열린 태도로 영유아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영유아의 관점에서 영유아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며 영유아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로 인하여 영유아는 자신의 의견과 존재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아 점차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영자, 이완정, 2006).

둘째, 영유아가 가진 고유의 능력을 인정하고 영유아의 세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영유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는 주도성을 가지고 일과를 보낼 수 있으며 점차 능동적인 힘과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김견미, 구은미, 2018).

셋째,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마음과 감정을 민감하고 진솔하게 공감하는 태도로 영유아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영유아는 교사와 온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가져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넷째, 영유아의 개별적인 발달 및 능력, 연령, 흥미 등을 고려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재·교구와 구체적인 활동 및 일과를 계획하고 진행하여 영유아는 자신의 연령과 능력에 맞게 신체·언어·인지·사회적으로 발달하며 성장할 수 있다(윤매자, 2010).

즉,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은 보육현장에서 실제로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의 권리존중보육 실행이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Leavitt(1994)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현장에서 영유아가 점심시간에 밥을 다 먹고도 다른 영유아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손을 씻을 때도 다른 영유아들이 다 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낮잠 시간이

아닐 때는 잠이 오는데도 참아야 하는 등 교사와 영유아 간의 불평등한 힘의 구조가 있어 영유아가 주체적으로 일과를 보낼 수 없음을 보고하였다. 김정래(2002)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유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영유아가 자신과 관련된 권리를 존중받을 기회가 부족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경희 외(2013)의 연구에 참여한 만 4세, 만 5세 유아는 교사가 안전을 과도하게 지키는 일과 운영으로 인하여 교실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하며 유아의 의견이 일과 속에서 반영될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외에도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보육현장과 더불어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할 때 경험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이 있다. 최은혜(2017)의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보육활동 이외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개별적인 발달 차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개인차를 반영한 교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미 외(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촉박하게 운영되는 일과 등으로 인하여 유아 의사에 반응할 여유가 많지 않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은하(2017)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가 영유아 개개인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고 충족시켜주는 일과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하는 교사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영유아의 모든 일과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이 요구된다. 하지만, 보육현장에는 영유아와 교사 간의 불평등한 힘의 구조가 있으며, 바쁜 일과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영유아의 개별적인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또한, 보육활동 이외의 과도한 업무, 촉박하게 운영되는 일과와 영유아의 개별적인 발달 차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어린이집에서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교사와 권리존중보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영유아권리존중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권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권리존중보육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권리존중보육과 관련된 연구는 교사의 개인적 자질과 심리적 변인을 중점으로 한 권리존중보육과의 관계를 탐색해 본 연구, 교사의 영유아권리인식에 따른 권리존중보육 실행에 관한 연구, 교사의 권리존중보육 실행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먼저, 교사의 개인적 자질과 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권리존중보육 실행에 관한 연구는 교사의 자기성찰(전현희, 이보영, 2019), 자아탄력성(안나영, 2020; 지해숙, 2022), 자아존중감(김세곤, 김주영, 2019), 긍정심리자본(이영주, 2017), 보육신념(김성미, 2012), 교사효능감(김시연, 2020; 박은연, 2022), 전문성 인식(박수진, 채승희, 2020), 보육 민감성(홍효의, 2017), 교사의 자질(이지은, 2017) 등이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함에 있어 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교사는 권리존중보육의 직접적인 실천자이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개인적 자질과 역량이 실제로 권리존중보육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 권리를 중점으로 권리존중보육 실행에 대해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태윤과 김미숙(2018)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권리를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고, 유아의 권리를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의 실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재와 김진옥(2021)의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이혜경(2006)의 연

구에 의하면 영유아의 권리는 교사가 영유아에 대한 관점과 영유아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문명란(2016)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가 사소한 것부터 영유아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보육을 실천하는 전문성이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가 영유아의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에 비해 영유아가 보육현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서유임, 2007), 유아교사의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비해 실행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가 있다(이유미, 안지혜, 2014). 또한, 교사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교사의 개별적 특성과 훈육에 대한 인식 차이로 영유아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을 제안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1) 등은 실제 보육현장에서 교사가 영유아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보육이 실행되지 못함을 나타낸다.

영유아권리존중과 관련된 교사의 갈등에 관한 연구는 교사의 근무환경인 기관유형, 담당연령, 담당학급에 따라 교사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연구(박해연, 2009),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늦은 퇴근 시간으로 행복감을 저해하여 보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고효주, 김혜순, 2020), 교사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을수록 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이 높아짐을 나타낸 연구(이경열, 박영신, 2015) 등이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보육교사는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개인적 변인뿐만 아니라 담당학급연령과 담당 반 유아 월령의 편차, 영유아의 개인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권리존중보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며, 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교사가 영유아 권리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와 달리 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정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교사가 학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 연령과 학급 내 영유아 월령의 차이, 영유아의 개인차 등의 요인도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혼합연령반

#### 1) 혼합연령반의 개념 및 현황

유아교육기관에서 집단을 구성하는 기초 단위인 학급은 수평적 집단(Horizontal group)과 수직적 집단(Vertical group)으로 나눌 수 있다. 수평적 집단은 동일한 연령을 구성하여 교육하는 반으로 단일연령반, 학년제 학교, 단일연령학급, 동일집단, 동일연령반 등으로 명할 수 있다(임재택, 1992). 수직적 집단은 유아의 연령을 혼합하여 교육하는 반으로 혼합연령반, 혼합연령학급, 이질적 집단, 무학년 집단, 다연령집단 등으로 명할 수 있다. 혼합연령반은 유아 간의 연령이 1년 이상의 차이가 있고, 지식, 기술, 발달능력, 경험에 있어서 다양한 수준 차이를 보이는 유아들로 구성된 학급으로 정의할 수 있다(Katz, Evangelou, & Hartman, 1990).

혼합연령반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임재택(1992)은 연령이 가장 높은 유아와 가장 낮은 유아의 연령 차이가 12개월에서 24개월 이상 되는 학급, 서진숙(2018)은 연령이 12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는 유아들

을 같은 집단으로 구성한 학급을 말하며 연령, 발달 수준, 능력, 지식, 경험 등에 있어서 다양한 수준 차이를 보이는 학급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밖에도 이윤미(2002)는 나이가 가장 많은 유아와 나이가 가장 적은 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연령이 차이가 나는 유아들로 구성된 집단을 혼합연령반으로 정의하였고, 한국유아교육학회(2009)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유아를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편성한 반, 강진아(2013)는 여러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학급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혼합연령반은 유아 간의 연령이 12개월 이상의 차이가 나며 유아의 발달수준과 능력, 지식과 기술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수준 차이를 보이는 유아들을 한 학급에 구성하여 함께 생활하는 반이라고 할 수 있다.

혼합연령반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혼합연령반은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몬테소리 프로그램과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 독일의 발도로프 프로그램과 상황중심 프로그램, 스웨덴의 유아학교 집단, 영국의 유아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권혜진, 이순형, 2005). 외국의 혼합연령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탈리아의 몬테소리 프로그램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중시한다. 몬테소리 프로그램에서는 2~6세까지의 연령으로 학급을 구성하여 유아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유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윤수정, 2007).

둘째,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은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3~5세 혼합연령반으로 유아의 애착 형성과 안정감을 위해 단일연령반과 함께 구성하며, 주로 2~5명의 소집단 형태로 활동을 운영한다. 혼합연령반의 소집단 활동을 통해 유아 간의 깊은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김경화, 서경숙, 2006).

셋째, 독일의 발도로프 프로그램은 모방과 본보기를 통한 교육을 중시한

다. 4~6세의 연령으로 학급을 구성하며, 유아가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경험하며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사와 유아의 안정된 관계를 중시하여 한 명의 교사가 3년 동안 동일하게 담임을 맡는다(류지후 외, 1985).

넷째, 독일의 상황중심 프로그램은 유아의 공동 경험과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0~3세, 3~6세, 0~6세의 연령을 혼합하여 학급을 구성하며, 단일연령반에 비해 혼합연령반에서 유아들이 다양한 연령 간의 협동적인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발달한다고 보았다(이명환, 2005).

다섯째, 스웨덴의 유아학교 집단은 유아의 집단활동을 통한 발달을 중시한다. 3세 미만 집단, 3~5세 집단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자극과 놀이, 연령이 다른 또래관계를 통해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양옥승, 1993).

여섯째, 영국의 유아학교에서는 개방주의 교육이 중시되며, 여러 연령의 유아들이 다양한 교재교구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발달할 수 있도록 혼합연령집단으로 운영된다(권혜진, 이순형, 2005). 이처럼 외국에서는 국가의 상황과 각 프로그램의 교육철학에 따라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혼합연령반으로 구성하여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혼합연령반은 유아교육기관의 상황과 사회 및 부모의 요구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 혼합연령반의 운영은 기관마다 운영방식이나 형태가 다르지만, 혼합연령반을 운영할 때는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맞춰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혼합연령반은 만 0세와 만 2세 영아는 혼합반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만 2세 이하 영아와 만 3세 이상의 유아는 혼합반으로 함께 운영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시·군·구의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 2세와 만 3세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만 2세와 유아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2).

어린이집에는 정규 혼합연령반을 편성하는 것 이외에도 시간연장형 보육을 통해 혼합연령반이 구성된다. 시간연장형 보육에서는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영아와 유아의 연령이 통합되기도 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농어촌 유치원·어린이집 실태와 개선안 연구(2016)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혼합연령반을 설치하는 비율은 대도시에서는 29%, 중소도시 30.8%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서 혼합연령반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의 정원 규모가 클수록 단일연령반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정원 규모가 작을수록 혼합연령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영유아 인구가 많지 않을 경우 연령별로 보육실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유아의 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아교육학회(1996)는 혼합연령반을 맡는 교사에게 유아의 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세가 5명 정도일 때 학급 인원이 25명이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연령 구성과 집단의 유형에 따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핵가족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외동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의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유아에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보육기관은 가정의 기능을 대체하고, 유아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혼합연령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기숙, 2008).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혼합연령반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저출산 현상으로 유아의 수가 축소됨에 따라 혼합연령반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유아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발달하는 사회성 측면에서 혼합연령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시간연장형, 영아 혼합연령반, 유아 혼합연령반 등 다양한 형태로 혼합연

령반이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도 혼합연령반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혼합연령반의 교육적 효과

유아기는 영아기를 거쳐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점차 성숙한 사회성을 발달해 나간다. 하지만 저출산, 외동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유아들이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이 부족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정서·사회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로 인해 유아의 다양한 대인관계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혼합연령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유아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가족 및 이웃 등의 지역사회를 연계한 연령통합프로그램이 대안적 교육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순형 외, 2011). Brody(1982)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집단 환경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라고 하였다. 혼합연령반에서 유아는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유아의 발달 수준에 따라 리더, 조력자, 멘토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다(이명환, 2005). 또한, 혼합연령반 유아는 연령과 상관없이 자신의 발달수준과 흥미에 맞는 또래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유아는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구축해 나가고, 문제 상황에서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또래 간의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유준호, 2006).

이처럼 혼합연령반에서 유아는 윗연령, 또래, 아래연령 등의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부족할 수 있는 가족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리더와 같은 단일연령반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역할을 경험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유아는 혼합연령반에서 다양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협력 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

다. 이에 구체적으로 유아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본 혼합연령반의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연령반에서 유아들은 성숙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적절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터득하여 인지를 발달시킨다. Vygotsky (1978)는 유아들이 다양한 연령의 또래와 상호작용을 통해 근접발달지대를 좁혀가며 인지적 기능을 발달한다고 하였다. ‘근접발달지대’는 유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적 발달 수준을 넘어서 잠재적인 발달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Katzetal(1990)은 혼합연령반에서 유아 간 발달수준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인지적 발달 수준 차이는 유아들의 인지발달 영역을 넓히고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고, 신은수(1996)도 다 연령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윗연령인 유능한 또래와 낮은 연령 유아들의 학습 차이가 인지발달에 교육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에서 주로 나이가 많은 유아들은 어린 유아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어린 유아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자신은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지식을 구체화하고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유준호, 2006).

즉, 윗연령의 유아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여 아래연령 유아의 문제해결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윗연령의 유아는 지식을 구조화시켜 확장해나가고 문제해결력을 향상하면서 인지적 기술을 발달해 나갈 수 있다. 아래연령의 유아는 윗연령 유아의 관찰과 모방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아래연령의 유아는 내면적인 인지적 갈등을 경험하며 인지적 기술을 발달해 나간다. 이처럼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가 경험하는 지식의 확장과 인지적 갈등은 유아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혼합연령반은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의 의사소통하는 과

정에서 서로의 언어를 모델링하고, 의사표현의 능력을 조절하며 언어적 기능을 발달해나간다. 혼합연령반에서 아래연령의 유아는 윗연령의 유아들과 의사소통하며 윗연령의 유아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을 모델링하며, 동일연령의 유아보다 윗연령의 유아에게서 확장된 언어를 듣고, 이를 표현해보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휘력을 향상할 수 있다(한금희, 1997). 또한, 윗연령의 유아는 아래연령의 유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의 형태와 단어를 바꾸며 언어를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게 된다(신은수(1996). 김현미(2002)는 만 4, 5세의 단일연령반과 혼합연령반의 언어능력과 언어유형을 비교하였는데, 혼합연령의 유아들이 단일연령반에 비해 언어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능력 중 언어 이해력, 언어 표현력, 어휘력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즉, 혼합연령반에서 유아는 단일연령반에 비하여 확장된 언어와 단어를 들을 기회가 많으며,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표현능력을 조절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는 서로의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언어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혼합연령반에서 유아들은 유능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혹은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해 나간다. 유아는 혼합연령반에서 다양한 또래와 어울리며 사회적 기술 및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친사회적 행동을 익힐 수 있다(Elkind, 1988). 아래연령의 유아들은 윗연령 유아들의 놀이 방식과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할 수 있으며, 교실 안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공동체 의식을 배우게 된다(안유리, 이대균, 2012). 또한, 윗연령의 유아는 아래연령의 유아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집단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Katz, Evangelou, & Hartman, 1990), 놀잇감이나 순서를 양보하는 과정에서 친사회성 기술을 받

달해 나가며 책임감과 이타심을 가질 수 있다(홍수연, 1995). 이외에도 아래 연령의 유아와 윗연령의 유아가 함께 지내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사회성을 발달하는데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다(유선미, 2015).

즉, 혼합연령반에서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는 서로의 놀이를 배우고 이끌어 나가며, 놀잇감을 공유하고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 친사회성 기술을 발달해 나간다. 또한, 혼합연령반에서 유아는 연령이 다른 유아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등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혼합연령반에서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는 각 연령의 발달수준 차이로 인한 인지적 갈등을 통해 유아의 인지발달 영역을 넓혀나가며, 서로의 언어를 모델링하고 의사표현의 능력을 조절하며 언어적 기능을 발달해 나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회성을 발달해 나간다. 즉, 혼합연령반에서 유아는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며 인지·언어·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 3) 혼합연령반 교사의 역할

혼합연령반은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로 구성되어있는 반으로서 유아의 능력 및 발달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신은수, 1996; 이정숙, 2006). 혼합연령반 교사에게는 혼합연령반 안에서 각 연령의 발달 수준과 능력을 이해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준별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Freedman, 1982). 즉,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들의 다양한 연령과 발달 수준 및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보육활동 및 일과운영을 통해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여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급된 ‘5세 누리과정 연령연

계 어린이집 프로그램(2012)' 자료집에 혼합연령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내용은 만 5세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만 3~4세 혼합연령반, 만 4~5세 혼합연령반, 만 3~5세 혼합연령반 등 복합적인 혼합연령반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나 혼합연령반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보육과정과 운영 지침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보건복지부의 5세 누리과정 연령연계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혼합연령반 교사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혼합연령반의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혼합연령에 따라 만 3~4세 유아를 위한 표준보육과정과 만 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 3~5세 유아의 누리과정의 생활 주제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보육계획안을 세우며, 유아의 흥미, 연령과 발달 특징에 따라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혼합연령반의 보육과정을 운영할 시에는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실내 자유놀이 시간과 대소집단 시간을 운영하고, 영역별 활동의 균형과 통합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요구된다(보건복지부, 2012). 이와 같이 혼합연령반의 특성을 고려한 혼합연령반 교사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연령반 교사는 각 연령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계획해야 한다. 혼합연령반은 유아들의 연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폭넓은 발달적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혼합연령반은 일반적으로 2~3년 주기로 구성되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 혼합연령반 유아의 흥미를 반영하고, 동일한 교육과정이 반복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유준호, 2006).

둘째,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들의 다양한 연령 차이에서 오는 발달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기 위해 영역별로 연령별 활동을 제공하며, 수업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소집단 활동을 제공하여 유아의

연령에 맞는 놀이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데, 소집단활동은 유아들이 소집단으로 모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별 유아와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함으로써 대집단 활동에서보다 개별 유아에게 접근하기 용이하고, 교사-유아, 유아-유아의 사회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정미라 외, 2004).

셋째,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의 장점인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유아간 상호작용과 협동을 조력해야 한다. 혼합연령반에서 유아는 교사의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또래의 도움을 더욱 쉽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 하지만 혼합연령반에서 윗연령의 유아가 아래연령 유아의 지속적인 요구로 부담을 느끼거나, 아래연령의 유아가 윗연령의 유아와 상호작용시 불이익을 받는 등 유아들 간의 연령차이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임희준, 2011). 따라서 혼합연령 간에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돕는 교사의 중재와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넷째, 혼합연령반 교사는 각 연령 유아의 발달 수준을 최대한 배려하여 일과를 운영해야 한다. 연령과 개별적인 발달 수준에 따라 식사습관, 낮잠 시간, 배변습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는 개별 유아의 발달 능력과 습관을 최대한 존중하여 하루일과를 운영하며 유아의 개인차에 따라 지도방법을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계획하며 각 연령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연령별 및 수준별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유아 간의 상호작용과 협동을 조력하여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각 연령 유아의 발달 수준을 배려하여 일과를 운영하여 유아의 개별적인 발달능력과 습관을 존중하는 지지자, 지원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 운영 시 또래강화, 또래모델, 또래지도, 개별화된 학습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수전략과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김명숙, 2008). 교수·학습방법이란 유아가 학습해야 할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유민임, 2007) 혼합연령반에서는 또래강화, 또래모델, 또래지도, 소집단 학습 방법, 개별화된 학습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김명숙, 2008). 또래강화는 유아가 또래의 행동을 동조하며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또래의 행동에 대해 강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유지하거나 제거하여 사회적 강화를 돕는다(박경희, 2010). 또래모델은 유아가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사회적인 행동을 학습하는 것으로 또래가 유아에게 사회적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송지현, 2019). 혼합연령반에서 유아가 유능한 또래를 통해 근접발달지역을 끊임없이 제공받고 내면화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송명자, 1995). 또래지도는 윗연령의 유아가 아래연령유아의 행동을 이끄는 것으로 윗연령의 유아가 아래연령 유아의 멘토가 된다. 나이가 더 많은 유아나 더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것은 인간의 본질로 윗연령의 유아가 혼합연령반에서 자연스러운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Lippitt, 1976). 개별화된 학습지원은 유아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서 개별화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연중, 전우천, 2011). 혼합연령반에서 교사는 유아들의 개인적인 발달 수준과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유아들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다.

이처럼 혼합연령반을 운영하는 교사는 또래관계, 소집단활동, 개별화된 학습지원으로 연령이 다른 유아의 개별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혼합연령반에서 또래의 관계를 통한 교수학습방법은 혼합연령이 가지는 이점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사의 운영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에서 유아들의 연령, 발달 수준의 차이로 인해 혼합연령반의 특성을 반영한 ‘등원’, ‘실내 자유놀이 시간’, 정리정돈시간, ‘실외활동시간’ 등의 일과 운영을 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2).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가 등원할 때 유아의 개별적인 기분과 상태를 살펴보고 따뜻하게 맞이한다. 아래연령의 유아가 양육자와의 분리를 힘들어할 경우 윗연령 유아들과의 놀이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양육자와의 분리를 도울 수 있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개별적인 흥미와 요구에 따라 놀이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놀이하는 시간인 실내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유아의 연령에 맞는 활동 혹은 수준별로 나눠 교재·교구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혼합연령반 교사는 정리정돈시간에 유아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아래연령의 유아와 윗연령의 유아가 협력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실외활동시간에 다양한 연령이 함께 신체활동 및 바깥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2).

이처럼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의 상호작용을 돕고, 혼합연령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춰 교재·교구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활동과 놀이를 지원하여 유아의 발달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일과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육현장에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 유아의 발달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혼합연령반 운영을 보조해줄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유아의 요구와 개별 발달 특성에 맞는 놀이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정정희, 2009).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 유아의 연령 비율이 달라 수업의 교육목표와 내용을 선정하는 것에 어

려움을 느끼고, 소집단활동과 대집단활동을 운영할 때도 각 연령의 수준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함에 어려움을 느낀다(이진화 외, 2014). 이외에도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들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발문법을 연구해야 하고, 유아 간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단일연령반을 운영하는 교사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김다해, 200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혼합연령반에서 교사가 다양한 교재·교구를 마련하고, 유아의 연령을 고려한 교수·학습 계획을 세우고, 유아의 개별적인 발달수준과 개인차를 반영한 일과를 운영함에 따라 단일연령반 교사에 비해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령반 교사들이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과 실천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지,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혼합연령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이해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심층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내부세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를 말한다 (Amos, 2008).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참여자, 연구 절차,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혼합연령반과 단일연령반을 모두 담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에서의 권리존중보육의 실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혼합연령반을 담당하는 교사, 혹은 최근 만 3년 이내에 혼합연령학급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선정하였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의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

교사	연령	학력	총경력	혼합 연령반 담당경력	기관 유형	담당 연령
A교사	26세	대학교 졸업	3년	1년	민간	만 3~4세
B교사	29세	대학교 졸업	5년	2년	직장	만 3~4세
C교사	29세	전문대 졸업	5년	2년	직장	만 3~5세
D교사	29세	전문대 졸업	6년	2년	직장	만 4~5세
E교사	28세	대학교 졸업	6년	3년	직장	만 3~4세
F교사	28세	대학교 졸업	5년	1년	직장	만 3~4세
G교사	29세	대학교 졸업	5년	2년	직장	만 3~4세
H교사	29세	대학교 졸업	6년	1년	직장	만 3~4세
I교사	29세	대학원 재학	5년	1년	법인	만 3~5세
J교사	27세	대학교 졸업	4년	1년	민간	만 4~5세

\*연구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알파벳으로 표기하였음.

### 1) A교사

A교사는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다. 총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연령반을 담당할 경력은 1년이다. 정교사로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으며 단일연령반을 맡다가 처음 만 3, 4세 혼합연령반을 맡게 되었을 때 두 연령의 발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반을 운영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섰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혼합연령반을 운영하면서는 형과 동생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서로의 사회성을 더 발달시켜주는 것이라고 인식하며 혼합연령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2) B교사

B교사는 대학교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였다. 총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연령반을 담당할 경력은 2년이다. 정교사로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였으며 해당 어린이집의 유아 인원이 많지 않아 유아반은 혼합연령반으로 운영된다고 하였다. 해당 어린이집은 레지오에밀리아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 실내 자유놀이 시간 전 유아와 함께 놀이 계획을 세우는데, 혼합연령반에서는 만 4세인 유능한 또래의 영향으로 놀이 계획의 수준이 높고 유아의 놀이도 더 풍부해진다고 느끼며 혼합연령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단일연령반에 비해 유아의 발달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개별적으로 유아의 상황을 고려한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3) C교사

C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다. 총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연령반을 담당할 경력은 2년이다. 처음 5개월 동안은 혼합연령반의 부담임으로 근무하였으나 이후 정담임으로 근무하며 혼합연령반을 운영하였다. C교사는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 인권 선임교사로 선정되어 아동 인권 관련된 교육을 수강한 뒤 동료 교사들에게 전달 연수를 하는 등 평소에도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로 인해 C교사는 혼합연령반을 운영할 때 ‘나이가 많음 혹은 적음’으로 인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 4) D교사

D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다. 총 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연령반을 담당할 경력은 3년이다. 혼합연령반 3년을 연임하여 혼합연령반에 재원하는 유아들의 성장과정을 꾸준히 지켜봐왔다. D교사의 반에

서는 특히 연령에 따른 유아의 발달 차이가 크고 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는 유아가 재원하고 있어 한 반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혼합연령반 안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나눈 활동이 많기 때문에 유아에게는 개별적인 수준에 맞게 발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 5) E교사

E교사는 대학교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였다. 총 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연령반을 담당할 경력은 3년이다. 직장어린이집에서 정교사로 근무하다 최근 2년 동안 주무교사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E교사는 유아의 놀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혼합연령반에서 유아의 놀 권리가 잘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혼합연령반에서 유아가 다양한 연령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경험이 더 풍부해지고, 이 경험이 놀이로 연계되어 확장된 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6) F교사

F교사는 대학교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였다. 총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연령반을 담당할 경력은 1년이다. 직장어린이집에서 1년동안 부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F교사의 혼합연령반은 오전 7시30분에 등원하여 오후 7시30분까지 긴 시간동안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보내는 유아가 많다. 따라서 F교사가 일과를 운영할 때 특히 유아들의 급·간식이나 낮잠 및 휴식등의 유아의 영양과 건강에 관련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 7) G교사

G교사는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다. 총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연령반을 담당할 경력은 2년이다. G교사는 만 3, 4세 혼합연령반을 담당하는데, 만 4세의 비율보다 만 3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만 3세 유아가 낮잠 시간 이후에 하원하는 경우가 많아 오전시간에는 만 3세와 만 4세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일과를 운영하고, 오후 시간에는 만4세와 소그룹활동 시간을 가지며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8) H교사

H교사는 대학교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하였다. 총 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연령반을 담당할 경력은 1년이다. 단일연령반을 5년 동안 담당하다가 최근 1년 동안 혼합연령반을 맡게되었는데, 단일연령반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윗연령과 아래연령 유아간의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어 혼합연령반에서 유아가 가질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 9) I교사

I교사는 현재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총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연령반을 담당할 경력은 1년이다. 법인어린이집에서 만 3, 4, 5세 혼합연령반을 맡았다. 해당 어린이집의 만 4세와 만 5세 유아의 수가 적어 만 3세 반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만 5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를 위하여 한글 등의 학습자료를 이용한 소그룹 활동을 따로 진행하였다. 단일연령반에 비해 혼합연령반에서 또래 모델링을

통해 얻는 경험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사회관계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낸다고 생각하였다.

## 10) J교사

J교사는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다. 총 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연령반을 담당할 경력은 1년이다. 민간어린이집에서 만 4, 5세 혼합연령반을 맡았다. 만 5세 유아반 부모의 요구에 따라 일과 중에 교사가 직접 한글과 영어를 소그룹활동 형태로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보조교사나 동료교사 없이 혼자서 혼합연령반을 운영했기 때문에 만 5세 유아의 소그룹활동을 진행하게 될 때는 만 4세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 보조교사나 다른 동료교사의 도움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 2. 연구 절차

### 1) 예비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할 면담 질문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면담 소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1년 3월과 4월에 예비연구를 시행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단일연령반과 혼합연령반을 모두 담당할 경험이 있는 경력 5년 이상의 교사 2인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예비연구에 참여한 교사 2인은 최근 3년 이내에 혼합연령반을 담당할 경험이 있다. 예비연구를 위한 면담을 실시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유선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이 녹음되며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교사의 일반적 배경, 권리준중보육에 관한

교사 교육 및 혼합연령에 관한 교사교육의 경험, 영유아 권리존중 및 혼합연령반에 대한 인식, 권리존중보육의 실제, 그리고 교사의 어려움 등에 대한 내용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면담에는 50~7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질문하였으나, 권리존중보육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포괄적이라 충분한 답변을 얻기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에게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권리가 잘 지켜졌던 혹은 지켜지기 어려웠던 일과에 대해서 질문하며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였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하는 형태로 질문을 수정하였다. 예비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교사들이 유아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혼합연령 유아 간의 갈등 상황이나 윗연령과 아래연령의 유아가 따로 진행해야 하는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에는 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일과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혼합연령반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질문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예비연구 결과와 예비연구 참여자 1인과 유아교육 전문가로부터 질문의 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 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질문 목록을 완성하였다.

## 2)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령반 교사들이 생각하는 권리존중보육의 의미가 무엇이고, 혼합연령반에서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과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연령반 교

사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의 권리존중보육 인식을 바탕으로 한 혼합연령반 운영에 따른 경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주간보육계획안, 보육일지, 원 내에서 진행된 권리존중교육 자료 등의 문서를 전달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면담노트와 연구 참여자의 저널을 작성하여 연구의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 전 2021년 3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온라인 과목을 3시간 이수하며 윤리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목적표집 한 후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개별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자는 연구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대체하여 표기하고,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명, 지역, 유아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기록 및 녹취를 한다는 점,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는 점, 연구가 종료된 후 모든 자료는 폐기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 (1) 심층 면담

본 연구를 위한 면담은 연구 참여자당 최소 2회씩 1:1 개별적인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질문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개인의 감정과 인식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Lincoln & Guba, 1985) 연구 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김영천,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혼합연령반 교사의 권리존중보육의 의미와 실제적인 노력, 어려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상 어린이집에 근무 중이고, 각 기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면담 날짜와 시간, 장소는 연구 참여자 의사를 따랐다. C교사와 F교사의 면담은 1차, 2차 모두 대면 면담으로 연구 참여자가 거주하는 집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 면담을 선호한 A교사, B교사, D교사, E교사, G교사, H교사, I교사, J교사와는 1차, 2차 면담 모두 비대면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형성을 위해 약 1달 전부터 SNS를 통해 안부 및 근황을 주고받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면담 시간은 연구 참여자 별로 1회당 50 ~ 7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20회 면담으로 129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면담에 앞서 연구 윤리에 의거하여 연구 참여자 교사에게 개별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었다. 면담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녹화를 하고, 면담이 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녹음하고 면담이 끝난 후에 모든 내용을 전사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의 다양한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해 Berg(1998)가 제시한 질문의 4가지 유형인 필수질문, 부과질문, 소모질문, 촉진과 탐색질문이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질문 목록을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내용을 SNS를 통해 안내하였고, 면담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 및 내용을 변경하였다.

1차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일정에 따라 2021년 6~8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 혼합연령반에서 권리존중보육의 실행에 관한 질문이 주로 이루어졌다. 2차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일정에 따라 8~11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1차 면담 때와 더불어 단일연령반과 다

르게 혼합연령반에서 고려해야 할 권리존중의 구체적인 사례와 권리존중보육의 실행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사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최대한 사례 중심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질문하였고 심층면담의 질문 내용은 표 2과 같다.

<표 2> 심층 면담의 질문 내용

질문 범주	질문 내용
연구 참여자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존중보육이나 혼합연령반 관련 교사교육을 받은 경험</li> <li>• 인권교육이나 권리존중보육에 관한 교사교육에서 떠오르는 사례나 내용</li> </ul>
연구 참여자의 의견/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교사의 생각과 의견</li> <li>• 권리존중보육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사례</li> </ul>
권리존중보육 관련 인식 및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연령반의 하루일과</li> <li>• 혼합연령반에서 권리존중보육을 실행하기 위한 고려사항</li> <li>•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한 교사의 경험과 사례</li> <li>• 단일연령반 운영과 혼합연령반 운영의 차이</li> </ul>
권리존중보육 실천과정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연령반 교사의 역할과 어려운 점</li> <li>• 혼합연령반에서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면서 느꼈던 어려움</li> </ul>

## (2) 문서수집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기관형태, 보육교직원 현황, 반 운영 형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주제와 관련된 면담내용의 분석을 위해 자료 제공이 가능한 연구 참여자에게서 혼합연령반 주간계획안, 혼합연령반 수준별로 진행된 놀이 및 활동사진, 혼합연령반 보육일지,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혼합연령반 일과표, 인권선임교사 교육 자료,

원내 권리존중보육 관련 세미나 자료 등의 서류를 수집하였다.

### (3) 면담노트와 연구자 저널

연구자는 개별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담 내용, 연구 참여자의 기분, 면담 시의 분위기, 면담 과정 중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 나 문장, 추가로 질문할 사항 등을 면담노트에 정리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로 기록하였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자 저널은 개별면담이 끝난 후, 면담의 상황과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였다. 연구자가 다음 면담 시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였고, 자료를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동시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제공받은 기타 문서자료, 심층 면담 녹음 전사자료, 면담노트와 연구자 저널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Amos (2008)가 제시한 데이터 수집 전략에 따라 개별면담 후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고, 수집된 자료들은 교사의 경험에 근거한 상황적 맥락을 유지하고자 주제와 관련된 핵심문장을 표시하면서 읽었다. 또한, 핵심문장 안에 있는 중심 생각을 메모 작업을 하며 주제에 따른 영역 내의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범주화된 패턴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탐색하고, 이와 관련된 인용구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 결과를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는 구성원 검토 방법을 사용하였

다. 분석된 자료는 표 3과 같다.

<표 3> 분석된 자료

자료 목록	자료수집 기간	수집된 자료
면담전사 자료	2021. 06. 02 - 2021. 11.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0회, 녹취 전사기록</li> </ul>
문서자료	2021. 05. 28 - 2021. 1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연령반 주간보육계획안, 일과표</li> <li>• 혼합연령반 보육일지, 놀이 및 활동사진</li> <li>• 연령별 보육프로그램</li> <li>• 원내 권리존중보육 관련 자료, 교육자료</li> </ul>
면담노트	2021. 06.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담노트</li> </ul>
연구자저널	- 2021.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저널</li> </ul>

본 연구의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혼합연령반과 관련된 용어를 ‘혼합반’, ‘만 3, 4세 유아반’, ‘만 4, 5세 유아반’, ‘통합반’ 등 교사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윗연령의 유아, 아래연령의 유아의 명칭을 ‘형님’, ‘동생’, ‘큰 연령’, ‘밑 연령’등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교사들이 사용한 용어를 ‘혼합연령반’과 ‘윗연령의 유아’, ‘아래연령의 유아’로 일관성 있게 서술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 중에 연구 참여자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핵심 문장을 표시하고, 핵심 문장의 중심된 생각을 단어로 메모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에 따라 ‘혼합연령반 교사들이 생각하는 권리존중보육의 의미’,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 ‘혼합연령반 교사들이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구분하고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범주화 수정 과정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딩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은 여러 차례 재조직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을 연결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하여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표 4> 범주화 수정 과정

1차 하위범주	2차 하위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하고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보육</li> <li>•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육</li> <li>• 유아가 주도하여 놀이하는 보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권리 속에서의 권리존중보육의 의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성 발달 측면</li> <li>• 존중과 배려의 측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연령반 속에서의 권리존중보육의 의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준별로 나누는 수업계획과 준비</li> <li>• 중간 목표의 설정하여 운영하는 일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부터 시작되는 권리존중보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간식시간에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노력</li> <li>• 실내 자유놀이 시간에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노력</li> <li>• 공평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유아간의 갈등 상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을 고려한 일과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내 교육, 교사 교육,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사의 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존중보육을 위한 교사의 성찰과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많은 업무로 인한 어려움</li> <li>• 기관 상황에 따른 어려움</li> <li>• 부모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연령반을 고려한 권리존중 교육의 부족과 접하기 어려운 교육환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연령반 교사의 요구</li> </ul>

마지막 범주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연구자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의 의미’와 ‘혼합연령반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범주를 통합하여 혼합연령반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의 인식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연계될 수 있도록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의 의미와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혼합연령반 교사의 요구’의 범주를 통합하여 ‘혼합연령반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범주로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범주 분석의 최종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연구 문제에 따른 범주 분석 최종 내용

연구 문제	상위범주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과 실천을 위한 노력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보육: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운영하기
	유아가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보육: 유아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교실 만들기
	유아가 주도하여 놀이할 수 있는 보육: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혼합연령반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유아의 건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
	유아의 의사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

#### 4. 연구의 신뢰성 확보 방안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의미 해석 및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김영천(2017)이 제시한 삼각 측정법,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의 조언,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확인 및 평가 과정을 거쳤다.

##### 1) 삼각 측정법

혼합연령반 보육교사의 경험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혼합연령반 주간계획안, 혼합연령반 일지, 면담 노트, 심층 면담 전사 자료, 연구자의 반성적 저널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삼각 측정법을 사용하였다.

##### 2) 동료 연구자의 조언

수집된 자료의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 석사 학위를 소지한 2인에게 연구자가 도출한 결과에 대한 조언 및 확인을 의뢰하였다. 연구자가 도출한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와 하위범주에 따른 상위범주의 적합성 여부를 피드백 받았다. 동료 연구자의 조언에 따라 혼합연령반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각 상위범주에 해당하는 결과에 포함하고 하위범주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자료 분석의 왜곡을 피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3)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확인 및 평가

연구 참여자인 혼합연령반 교사 2인에게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와 도출한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의뢰하여 연구자가 도출한 권리존중보육에 대

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를 받았다. 또한, 연구자가 도출한 결과에 연구 참여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령반의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혼합연령반 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혼합연령반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면담하였다. 연구 결과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의 의미와 실천을 위한 노력, 그리고 권리존중보육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범주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과 실천을 위한 노력

혼합연령반 교사들이 권리존중보육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권리존중보육을 유아의 생존권, 참여권, 발달권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보육’, ‘유아가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보육’, ‘유아가 주도하여 놀이하도록 돕는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보육: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운영하기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권리존중보육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 유아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아의 ‘생존권’이 보장되려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이를 위하여 개별적인 보육을 통한 급·간식시간과 낮잠 시간을 운영하며 유아의 생존권이 보육 속에서 실천되도록 노력하였다.

#### (1)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유아의 생존권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권리존중보육이란 유아들이 생존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돕는 보육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사들은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권리존중보육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교사는 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사 스스로 유아의 권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권리존중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생각해보면, 유아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G교사, 2021.08.04.)

유아의 가장 큰 권리를 생각하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생존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권리존중보육은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아가 다치지 않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A교사, 2021.08.19.)

위의 사례와 같이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생존권’을 유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생존권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즉,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생존권’은 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권리임을 알 수 있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생존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과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아가 안전하게 지내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아 특성상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교사 2021.09.19.)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위험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우며, 상황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생존권’을 지켜주는 권리존중보육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유아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성인 즉, 교사의 보호가 필요함을 뜻하며 교사는 유아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안전교육을 통해 유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혼합연령반 교사의 노력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들은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의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실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을 정하고, 혼합연령 유아들의 신체발달 수준을 고려한 신체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혼합연령반에서 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유아들이 의자 위에서 놀이하다가 뒤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아에게 바로 위험하다고 알려주고, 대집단 시간에 교실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교실 안의 약속을 만들어서 함께 지키기로 했어요. (중략) 만 3세와 만 4세 유아 모두가 약속을 인지하고, 교실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약속판을 만들었는데, 만 3세 유아는 아직 한글을 읽기 어려우니까 그림과 글을 같이 넣어서 만들었어요.

(C교사, 2021.07.03.)

C교사는 일과 중에서 유아가 의자 위에 올라가 뛰다가 뒤로 넘어질 뻔한 상황을 보고 바로 유아에게 위험한 상황임을 안내하였다. 또한, C교사는 유아가 교실 안에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위험했던 상황에 관해서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실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을 정하였다. 이는 교실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교사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C교사는

그림과 글을 포함한 약속판을 만들어 교실 안에 게시하였는데, 이는 연령 차이가 있는 혼합연령반 유아들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들도 그림을 통하여 약속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혼합연령반에서 신체활동을 진행할 때 유아들의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혼합연령반 교사의 사례이다.

(어린이집) 유희실이 넓지 않아서 신체활동 할 때 만 3세의 신체발달이 만 4세보다는 덜 성숙한 상태이다 보니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요. 특히 달리기할 때 만 4세는 정말 빨리 뛰거든요. 만 3세가 만 4세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체활동을 같이 하지 않고 만 3세 따로, 만 4세 따로 나눠서 신체활동을 하고 있어요.

(C교사, 2021.07.03.)

신체활동을 할 때 3세는 체격이나 신체조건이 4세의 발달에 비해서 느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단계별로 하거나 3세와 4세의 활동에 차이를 두고 진행해요. 예를 들어 3세는 아직 두 발로 점프하거나 연속으로 점프하기 어려우니까 유니바를 연속적으로 뛰어넘으면 앞으로 넘어져서 다치게 돼요. 그래서 3세는 유니바의 간격을 더 넓게 제공해주거나 개수를 줄여서 제공해요.

(E교사, 2021.08.18.)

이처럼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신체활동을 진행할 때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의 신체발달의 차이로 인해서 종종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C교사는 제한된 공간인 유희실에서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가 함께 달리기할 때 달리기 속도의 차이와 달리기할 때 방향을 자유자재로 전환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래연령의 유아가 넘어지거나 다른 곳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체

활동을 진행할 때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를 따로 분리해서 일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E교사는 윗연령과 아래연령의 유아가 신체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활동 시 사용하는 기구의 간격을 넓게 배치하거나 신체기구의 개수를 줄여서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연령이 다른 유아의 신체발달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 안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신체발달 차이를 이해하며 다치는 사고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활동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거나, 신체활동기구의 배치와 개수를 차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교육은 교사가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교육인데, 유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니까 유아에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전교육 자료를 보면 연령 별로 수준을 나누지 않고 영아, 유아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해요.

(C교사, 2021.06.01.)

C교사는 어린이집의 바쁜 일과 속에서 안전교육이 소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안전교육을 통해 유아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유아에게 무척 교육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안전교육이 교사가 유아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동적 의미의 교육이 아닌, 유아가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능동적 의미의 교육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안전교육은 유아에게 능동적으로 자신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더 발전된 의미의 생존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혼합연령반 교사가 안전교육을 진행할 때 활용하는 자료는 영아 수준과 유아 수준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연령 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자료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안전교육은 만 3세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맞춰 진행했어요. 그렇지만 오후에 만 4세 유아와 소집단을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심화한 안전교육의 내용을 다뤘어요. (중략) 연령 마다 영상이나 사진 자료, 아니면 도서를 이용하여 안전교육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주거나, 생각이나 지식을 확장할 수 있게 지원했어요.

(H교사, 2021.08.15.)

안전교육을 보통 대집단 활동에 진행하는데, 대집단 시간에는 안전교육을 연령별로 나눠서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집단 활동에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안전교육을 진행하되 대집단 활동이 끝나고 나면 소집단으로 따로 모여서 아래연령의 유아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알려주고, 윗연령의 유아는 심화한 내용을 다루죠.

(A교사, 2021.09.20.)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안전교육이 대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령별로 수준을 나눠서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집단 활동시간에 안전교육을 진행할 때 윗연령과 아랫연령 유아의 중간수준을 맞추거나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연령과 발달에 따라 안전교육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집단 활동시간 이후에 연령별로 소그룹 활동을 진

행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소그룹 활동을 진행할 시 윗연령의 유아에게는 심화한 안전교육의 지식을 안내하고, 아래연령의 유아에게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관련 도서나 영상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혼합연령반 교사는 각 연령의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 모든 연령의 유아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 (3) 즐거운 식사 시간과 편안한 낮잠 시간을 운영하는 혼합연령반 교사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급·간식시간에 유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낮잠 시간에는 수면과 휴식을 통해 신체발달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어린이집에서의 급·간식시간과 낮잠 시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급·간식시간과 낮잠 시간에 개별적인 지원을 통해 유아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보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유아들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이고, 신체발달을 위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식사량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반은 식사량이 현저하게 낮은 친구들이 많아서 유아에게 억지로 먹을 수 있도록 강요하는 방법보다는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유아들이 음식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사의 상호작용을 바꿔보든지, 밥을 제공할 때 하트 모양이나 별 모양으로 제공한다든지, 유아 스스로 양을 정해서 먹어보면서 유아들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죠.

(H교사, 2021.08.15.)

식사 시간에는 유아들이 식사가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아가 기본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흥미가 없는 유아들이라면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유아 스스로 식사량을 정하면서 식사 시간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고 유아가 스스로 음식을 섭취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G교사, 2021.09.26.)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교사는 유아에게 식사 시간이 교사의 강요에 의해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유아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H교사는 유아의 개별적인 식사량을 고려하고, 음식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밥의 모양을 하트, 별 모양으로 제공하거나 식사량을 유아 스스로 정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는 교사가 단순히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미를 넘어서 유아 스스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권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혼합연령반에서 급·간식시간을 운영할 때 유아들의 다양한 연령과 발달 차이로 인해 식사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아마다 식사 속도가 다르고 선호하는 음식도 다르지만, 특히 저희 반에는 윗연령의 유아가 밥을 빨리 먹어요. 그래서 빨리 식사를 마친 윗연령 유아의 입장에서 아래연령의 유아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죠. (중략) 모두가 다 먹고 나서 일과를 진행하게 되면 느리게 식사하는 유아는 마음이 급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트 교사와 그룹을 나눠서 차례로 다음 일과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E교사, 2021.06.14.)

간식을 먹을 때 유아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윗연령이 일찍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아들마다 식사 속도의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 메이트 교사와 분담해서 일찍 먹은 그룹, 중간 그룹, 마지막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외활동을 나가요. 아직 간식을 다 먹지 못한 유아는 천천히 간식을 먹을 수 있게 개별적인 식사 시간을 존중하죠.

(D교사, 2021.08.01.)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마다 개별적인 식사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먼저 마친 유아들의 그룹을 순차적으로 나눠 다음 일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먼저 식사를 마친 유아가 무의미하게 기다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 것과 더불어 식사 시간이 다른 유아들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식사 시간과 식사 습관이 서로 다른 유아를 배려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혼합연령반은 한 반으로 운영되지만, 그 안에서 혼합연령의 다양한 발달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다양한 연령의 발달 차이를 고려한 식사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고른 성장과 심신의 안정을 위해 낮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아기는 한창 성장하는 시기죠. 그래서 유아의 신체발달을 위해서 낮잠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아들이 보통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등원해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연령과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유아가 낮잠 시간에 충분히 잠을 자지 않으면 오후 시간에 많이 피곤해해요. 모든 유아가 꼭 낮잠을 자야 하는 건 아니지만 30분 정도라도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C교사, 2021.09.05.)

유아에게 낮잠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유아에게 꼭 자야 한다고 강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낮잠 시간에 휴식할 시간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죠. 낮잠 시간은 무엇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략) 교사가 점차 교실의 밝기를 조절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유아가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G교사, 2021.08.15.)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낮잠 시간에 적절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오후 시간에 피곤해하는 것을 느꼈다. 이는 유아가 아침 일찍 등원하여 오전 시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오전에 소진했던 체력과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오전 시간에 이루어진 많은 활동들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낮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낮잠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유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수면 및 휴식의 환경을 마련하여 유아의 ‘생존권’을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낮잠 시간에 잠이 오지 않는 유아에게 꼭 낮잠 자기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즉, 유아가 낮잠 시간에 꼭 낮잠을 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혼합연령반의 낮잠 시간에 유아들의 개별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휴식을 돕는 교사의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만 3세와 만 4세가 같이 낮잠을 자는데, 만 4세가 되면 확실히 낮잠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일찍 일어난 유아는 10분 정도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책을 보거나 그림에 색칠하면서 조용한 활동을 해요. (중

략) 만 3세의 경우에는 영아반에 비해서 낮잠 시간이 많이 줄어서 더 피곤해  
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난 유아들부터 정리하고, 잠이 많은 유아의 경우에는  
되도록 마지막에 깨워서 조금 더 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A교사, 2021.09.20.)

만 3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낮잠 시간이 영아반에서는 조금 더 일찍 이루  
어지니까 그 시간(영아반 낮잠 시간)이 되면 피곤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래서 만 3세 유아들은 먼저 잘 준비해서 일찍 잠들 수 있게 배려해주고 있어  
요.

(F교사, 2021.07.09.)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윗연령의 유아의 경우에 수면 시간이 줄어 주로 낮  
잠 시간에 일찍 일어나고, 아래연령의 유아는 영아반에서의 낮잠 시간이 익  
숙하여 유아반의 줄어드는 낮잠 시간으로 인해 피곤해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일찍 일어난 윗연령의 유아는 책보기, 색칠놀  
이 등 조용한 활동을 하며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아래연령의 유아는 먼저 낮잠 잘 준비를 마쳐 일찍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거나, 윗연령 유아의 이불이 정리된 이후에 깨워 조금 더 긴 시간동안 낮  
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혼합연령의  
낮잠 습관과 수면시간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각 연령에 맞게 융통적으로  
낮잠 시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사들은 혼합연령반에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 낮잠 시간을 조율하여 개별적인 수면시간을 수용하고,  
개별적으로 유아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낮잠 시간을 운영하며 유아  
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유아가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보육 : 유아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교실 만들기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의사를 표현하고, 어린이집 일과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권리가 권리존중보육에 포함된다고 인식하였고, 유아의 의견이 반영된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교사들은 유아의 의견을 수용하고, 유아 간의 공평한 의사소통을 돕고, 교사 교육을 통해 교사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보육 속에서 유아가 참여할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였다.

(1)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유아의 참여권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일과를 결정할 수 있는 ‘참여권’의 주체로 인식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교실 안에서 교사의 의견보다 유아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유아가 주도성을 가지고 일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유아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참여권’이라고 하죠. 교사는 유아가 자율적으로 어린이집 일과에 참여하고, 유아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해서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참여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C교사, 2021.06.01.)

교실 안에서 교사의 권위와 유아들의 권위가 있다면 유아들에게 조금 더 주도성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권리존중보육이라고 생각해요. 유아에게 항상 의견을 물어보고, 교사는 그 의견을 수용하고, 유아가 직접 놀이시간,

정리시간, 실외활동 장소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사는 유아가 주도해서 일과를 결정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략) 그렇게 하면 유아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일과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H교사, 2021.08.15.)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참여권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실 안에서 유아의 의사가 반영되고, 유아가 일과를 결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실 안에서 교사의 의견과 유아의 의견이 존재할 때, 유아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교실이 유아의 ‘참여권’을 실천한 교실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교실 안에서 유아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유아가 주도성을 가지고 일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D교사의 경우에도 교사가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유아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유아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고, 하나의 인격체로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자기의 의견을 존중받는 건 중요하고, 또 성장의 기본 바탕이 되는 일이잖아요.

(D교사, 2021.08.01)

D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D교사는 유아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생각하며, 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려고 노력하였다. 더 나

아가 혼합연령반 교사는 단일연령반에 비해 혼합연령반안에서 더 확장된 의미의 ‘참여권’ 존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우리가 사회적 기술을 쓰잖아요. 내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가져가고 싶어도 그냥 가져가지 않고 “나 이거 가져 가도되?”라고 물어보는 것,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존중하는 것. (중략) 연령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지내면서 놀이 속에서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유능한 또래한테 사회적인 기술을 배워가는 것들이 유아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합반의 이점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B교사, 2021.09.04.)

혼합연령반에서 권리존중을 생각하면 서로 간의 존중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권리도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잖아요. 쉽게 아이들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데 그거를 다른 연령과 한 반에서 지내면서 다른 연령의 생각도 중요한 것을 아는 거죠.

(J교사, 2021.09.02.)

위의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단일연령반에서 경험할 수 없는 형님, 동생, 또래, 교사 등의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혼합연령반의 큰 장점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혼합연령반에서 다양한 연령의 의견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연령이 다른 유아들 간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타인의 입장

을 경험하고 존중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유정, 정연아, 2020). 이와 같은 이유로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에서 유아가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험을 통해 ‘참여권’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에서 유아가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자,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2) 유아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일과를 운영하기 위한 혼합연령반 교사의 노력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의사가 일과에 반영되며 유아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교실이 유아의 참여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의견이 반영되는 보육이 유아의 참여권이 잘 지켜지는 보육이라고 인식하였다. 이에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의견이 반영되는 일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의 대화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해체함으로써 유아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와 유아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였다.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저는 유아와 이야기를 나눌 때 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교사가 유아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육 중에 최대한 존댓말을 사용했어요. (중략) 존댓말을 사용함으로써 교사가 언어로 유아를 존중할 수 있고, 유아 또한 자신이 하나의 인격체로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길 바랐어요.

(E교사, 2021.08.18.)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교사의 대화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유아들과 이야기 할 때 ‘하세요’, ‘해야지’처럼 명령하듯이 이야기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처럼 유아의 입장을 먼저 물어보았어요.

(J교사 2021.09.02.)

E교사는 유아를 성인의 입장에서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 위해서 유아와 대화할 때 존댓말을 사용하였다. 이는 교사가 언어를 통해 유아를 존중하며 교사와 유아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J교사 또한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교사와 유아 간의 대화방식을 스스로 점검하였고, 유아의 의견을 물어보고 수용하는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민주적인 대화방식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면담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참여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교사의 태도와 대화방식을 바꾸며 유아를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유아가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가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결정하게 하고, 일과 시간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혼합연령반 교사가 유아에게 자신의 생활 공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제한하고 있던 것을 제한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신발장의 위치와 사물함의 위치를 유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거나, 점심 먹을 때 앉을 자리와 대집단 활동 시간에 모여 앉을 때의 자리처럼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속에서 유아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도 유아들의 ‘참여권’을 존중하는 하나의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I교사, 2021.08.04.)

밥 먹을 자리를 정할 때, 자신의 서랍장 자리를 정할 때, 대집단 시간에 앉을 자리를 정할 때 유아에게 직접 자신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물어보았어요. 자신이 앉을 자리와 서랍장 자리를 선택하면서 교실은 유아들의 장소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J교사, 2021.09.02.)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제한하고 있던 공간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전에는 교사가 유아의 신발장이나 사물함의 위치를 임의로 정하였지만, 유아가 스스로 자신이 신발을 놓고 싶은 곳, 사용하고 싶은 사물함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급·간식시간과 대집단 활동시간에도 유아가 앉을 자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는 임의로 자리를 정한 교사의 제한을 유아가 결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어린이집이 교사의 공간이 아닌 유아의 공간임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참여권이 보육 속에서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유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의견을 반영하는 보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가 유아의 권리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을 점검하며, 유아가 어린이집의 일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를 확장하여 유아의 참여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가 생활하는 공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유아가 일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

써 참여권을 지켜주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에서 특히 전이시간에 권리존중보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유아가 옷을 갈아입고 싶다면 서랍장에 가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아가 입고 싶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정리할 때도 유아가 정리시간을 직접 정할 수 있죠.

(G교사, 2021.09.26.)

전이시간이 지나고 다른 일과가 진행될 때 유아에게 몇 번 놀이하고 정리하고 싶은지 아니면 놀이를 더 하고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싶은지 등 항상 유아들의 의견을 물어봐요.

(E교사, 2021.08.18.)

G교사는 유아가 의견을 내고, 선택할 수 있는 전이시간을 마련하였다. G교사는 유아에게 전이시간이 정해진 시간 내에서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닌 유아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E교사 또한 유아에게 의견을 물어보며 정리시간과 놀이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처럼 G교사와 E교사는 유아에게 어린이집 일과 시간에 대해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가 유아에게 어린이집 일과 시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유아의 주체적인 일과 참여를 격려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노력은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보내는 유아가 주체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정하여 유아가 주인이 되어 생활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3) 유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공평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혼합연령반 교사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반에서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 간 언어발달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에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가 공평한 위치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혼합연령반에서 ‘참여권’을 지켜주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갈등 상황) 해결과정에서 윗연령 유아의 의견이 주로 채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해결방안을 이야기할 때 윗연령의 유아가 주도해서 말하니까 아래연령의 유아는 대답을 잘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윗연령 유아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사가 생각했을 때) 아래연령 유아의 입장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면, 교사가 개입해서 중재하죠.

(E교사, 2021.06.14.)

유아 간 갈등 상황 있을 때 윗연령 유아는 인지와 언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언어적인 표현으로 아래연령의 유아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놀이에 안 끼워줄 거야”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래연령의 유아는 윗연령 유아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니까 교사가 두 연령이 공평한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아래연령 유아의 언어적 표현을 도와주죠.

(D교사, 2021.08.01.)

갈등 상황에서 두 연령이 언어발달 차이가 있다 보니 윗연령의 유아는 억울했던 부분, 해결하고 싶은 부분 등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래

연령의 유아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간단하게 표현해요. 그때는 교사가 유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다가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유아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두 연령이 의사소통이 잘 되게끔 도와주죠.

(A교사, 2021.06.16.)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에서 윗연령과 아랫연령의 유아 간의 갈등 상황에서 윗연령의 유아와 아랫연령의 유아의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의 차이로 인하여 다소 불공평한 상황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였다. 주로 아랫연령의 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의사능력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윗연령의 유아가 주도성을 가지고 갈등 상황이 해결되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또한, 윗연령의 유아가 자신의 입장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랫연령의 유아보다 조금 더 유능하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랫연령 유아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고 윗연령 유아의 주도하에 갈등 상황이 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하였다.

윗연령의 유아와 아랫연령의 유아가 공평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은 유희정(2005)의 연구에서 혼합연령반에서 아랫연령의 유아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사례이다. 이처럼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 간의 의사소통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고, 교사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서로 공평한 위치에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갈등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개입하여 혼합연령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윗연령과 아랫연령 유아의 의사표현과정을 돕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유아의 참여권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결정에 윗연령과 아랫연령

의 유아를 서로 공평한 위치에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가 제시한 해결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가 서로 달라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저희가 요즘 놀잇감 때문에 갈등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4세 친구들은 시계를 볼 줄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몇 시 몇 분에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동생들을 그냥 “5번 하고 빌려줄게”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형님들한테는 5번이 5분이고, 동생들한테는 5번이 정확한 기준 없이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럴다 보니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고,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4세 입장에서는 3세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답답할 수 있고, 3세 입장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워서 답답할 수 있으니까 교사가 다시 언어로 말해줘요.

(H교사, 2021.08.15.)

H교사는 유아들이 제시한 해결방법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 유아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H교사는 유아가 놀잇감을 빌려줄 수 있는 횟수를 제안할 때 윗연령의 유아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간을 표현하였지만, 아래연령의 유아는 정확한 시간을 표현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H교사는 서로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윗연령의 유아에게는 정확한 언어와 완성된 문장으로 말하고, 아래연령의 유아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문장으로 말해주며 서로의 눈높이에 맞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혼합연령반 교사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유아 간의 의사소통을 돕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민주적 참여를 지원하여 유아의 참여권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 간의 갈등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거나,

긴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은연중에 윗연령의 유아에게 양보 및 배려를 기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만 4세 유아는 많은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정 상황을 인지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놀이가 있더라도 참을 수 있고, 놀잇감을 빌려주기 싫어도 참고 만 3세에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 4세 유아가 특정 놀잇감을 만 3세에게 오랜 시간 동안 빌려주지 않는다면, 교사가 은연중에 네가 형님이니까 동생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라고 말했어요.

(B교사, 2021.07.21.)

만 4세한테 교사가 “네가 형님이니까 동생을 위해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아니면 “동생은 잘 모르는데 너는 (규칙을) 잘 아는 형님이니까 동생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아니면 네가 대신 해볼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 만 4세 유아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교사의 이런 말들이 4세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고작 몇 개월 어린 동생들 때문에 수고로움을 짊어져야 하니까.

(A교사, 2021.06.16.)

위의 사례와 같이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 간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윗연령의 유아가 조금 더 성숙한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연령의 유아에게 배려하기를 권유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실제로 혼합연령 유아 간의 갈등 상황이 길어지면 교사의 편의와 주도하에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윗연령과 아래연령의 유아의 의견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유아 간의 갈등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교사가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는 바쁜 보육현장의 한계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각 연령의 유아의

의견이 반영되고, 유아 간의 자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한편, 혼합연령반 교사는 대집단 활동시간에 윗연령 유아가 아래연령 유아보다 언어·인지 발달 수준 높아 아래연령 유아의 의견을 수용하기 보다는 윗연령 유아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집단 활동에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이었는데 만 3세랑 만 4세가 발달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대답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만 3세는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은데 만 4세는 아무래도 더 활발하게 대답하고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하다 보니까 교사가 만 4세의 의견을 더 북돋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세의 의견이 묵살될 때가 있어요.

(H교사, 2021.10.17.)

윗연령의 유아가 교사 말을 더 잘 이해하고 잘 따르고, 표현하는 것도 원활하니깐 약속을 정할 때나 대집단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때 윗연령 유아의 표현에 중점이 맞춰져요. 아랫연령의 유아의 의견은 교사가 다 수용하기는 어렵죠.

(E교사, 2021.06.14.)

위의 사례와 같이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와 함께 교실 안의 약속을 정할 때나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윗연령 유아의 의견을 중점으로 대집단 활동시간이 운영된다고 이야기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윗연령의 유아가 주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고,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대집단 활동시간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연령 유아의 의견보다는 윗연령 유아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혼합연령반의 대집단 활동시간이 유아의 주체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닌 교사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시간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모습은 유아의 주체적인 생각과 표현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유아의 참여권을 존중하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혼합연령반 교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유아의 의견이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모든 연령의 유아가 대집단 활동시간의 주체자가 되어 참여할 수 있고, 교사의 질문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유아의 감정과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대집단 활동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유아가 주도하여 놀이하도록 돕는 보육 :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반안에서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실내 자유놀이 시간과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일과 시간에 유아의 연령에 맞는 지원을 통해 유아의 발달권을 지켜주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유아의 발달권**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놀이를 매개로 하여 발달하고 성장한다고 인식하였다. 즉,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고 발달하기 때문에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인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놀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놀이가 유아의 삶을 구성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고  
른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놀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를 존중해  
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아한테는 놀이가 곧 교육인데, 어린이집은 교육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니까 유아에게 놀이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C교사, 2021.06.01.)

누리과정이 개편되면서 아동 중심 놀이를 강조했잖아요. 그게 유아의 놀 권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놀이할 때는 규칙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교사가 제한하지 않고 유아가 스스로 선택해서 놀이할 수 있죠.  
유아가 스스로 선택해서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사는  
유아가 선택한 놀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I교사, 2021.08.04.)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언어·인지·사  
회·신체 등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혼합  
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보육이 유아의 발달권이 잘 지켜  
지는 보육이라고 인식하였다. 즉,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한 유아의 발달권  
은 놀 권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발달권’은 유아가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는데(국가인  
권위원회, 2018), 영유아의 경우에는 놀 권리를 포함한다. 위의 사례에서 I교  
사는 2019년에 누리과정이 아동중심과 놀이중심으로 개편된 것이 유아의 놀  
권리가 보육 현장에서 더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국가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놀이를 통한 발달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한 것으로 혼합연령반 교사가 놀이를 중요하다고 여긴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고 볼 수 있다.

누리과정이 개편되고 유아의 흥미 위주로 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아무래도 주제를 정할 때도 유아의 흥미를 반영하다 보니 ‘공룡 놀이’나 ‘킥보드 놀이’처럼 이전에는 진행되지 않았었던 놀이 주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유아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 교실 안에서 더 재미 있어하고, 흥미로워하고, 응원하는 것도 이전보다 더 즐겁게 응원하는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유아의 놀이가 교사가 주도하지 않아도 확장되는 것을 느꼈어요.

(F교사, 2021.07.09.)

F교사는 누리과정이 아동중심과 놀이중심으로 개편되고 나서 놀이의 주제를 정할 때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유아의 흥미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주제로 놀이를 진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F교사는 교사가 주도하지 않아도 확장된 놀이를 즐기는 유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유아가 놀이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를 수용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매개로써 유아의 놀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능한 또래를 통해서 모델링하는 유아를 보면서 혼합연령반에서 유아의 ‘발달권’이 잘 실현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대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저는 혼합연령에서 유아가 발달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실 안에서 교사 말도고 좋은 모델링을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있죠. 유아가 윗연령이나 아래연령의 유아를 모방하면서 사회성을 더 발달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반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놀이와

활동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유아에게 더 많이 발달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I교사, 2021.08.04.)

혼합연령반을 운영할 때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받으며 일과를 운영해요. 이전에 종이접기 활동이 있었는데 교사가 유아에게 접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과 윗연령의 또래가 접는 방법을 아래연령에게 알려주는 거랑 유아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윗연령의 유아가 접은 종이접기 모양이 반듯하지 않거나 교사가 알려준 방법과 다르더라도 아래연령이 윗연령한테 배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유아들이 교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알려준 적이 있던 윗연령을 찾아가서 “이게 잘 안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처럼 저는 유아들이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했어요.

(D교사, 2021.08.01.)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반에서 유아가 다양한 연령의 생각과 행동을 경험할 수 있어 사회성을 발달하는 측면에서 단일연령반에 비해 더 많은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아가 유능한 또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단일연령반에 비해 혼합연령반에서 유아의 ‘발달권’이 잘 실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가 서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습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가 도움이 필요할 때 교사에게 요청하지 않고 유능한 또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2) 유아의 발달에 따른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혼합연령반 교사의 노력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실내 자유놀이 시간이 유아의 ‘발달권’이 가장 잘 지켜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연령별 및 수준별로 놀이활동을 계획하고, 적절한 교수 매체와 자료를 제공하며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유아가) 놀이하면서 가장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놀이시간이 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교사는 유아의 놀이가 확대되고, 유아가 자신의 놀이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사가 유아에게 적절한 교수매체와 자료를 지원함으로써 놀 권리를 존중해주고 있죠.

(E교사, 2021.07.15.)

권리존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은 놀이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놀이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놀이시간이 유아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죠. 그 시간에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지원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아가 가진 놀이 욕구를 존중해주는 것이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F교사, 2021.08.11.)

실내 자유놀이 시간에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발달과 요구에 맞게 지원하는 지원자인 것 같아요. 즉, 유아의 수준과 개별적인 흥미에 맞는 적절한 교수매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유아의 놀 권리를 잘 지켜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G교사, 2021.09.26.)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실내 자유놀이 시간이 유아의 놀 권리를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유아의 ‘발달권’이 잘 실현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자유 선택 활동 시간에 적절한 교수매체를 지원하고 유아의 요구와 발달에 맞는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 계획안을 수준별로 나눠서 계획하거나, 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의 놀잇감을 배치하고자 하였다.

혼합연령반 안에는 두 연령의 유아가 있다 보니 교사가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지원할 때 조금 더 넓게 생각해야 해요. 수준별로 나누고, 발달 별로 나누고, 연령별로 나누면서 종합적인 발달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개별)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I교사, 2021.08.04.)

실내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의 놀이 수준을 3수준까지 나눠서 계획했어요. 유아들이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를 해야 놀이에 즐거움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유아의 언어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했던 것 같고, 신체발달도 개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체활동에서도 수준을 나눴어요.

(B교사, 2021.06.09.)

일과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주별 놀이 계획
쌓기	빅블록으로 집 구성하기/ 나무블록으로 잠수고 구성하기/ 팔빙수, 아이스크림 가게 구성하기
실내 자유 놀이	역할 비 오는 날 관련 소품(우산, 비옷, 장화 등)이용해 놀이하기 집 안에서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역할극 놀이하기/ 여름 음식(팔빙수,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하기 물에 잠긴 잠수고 인도 차도 구분하여 역할극 놀이하기
미술	파란비닐, 투명비닐 이용해 비 내리는 모습 표현하기/ 재활용품(계란판, 파란비닐) 이용해 우산 만들기 비를 때 볼 수 있는 동물 색칠하기(1수준)/ 스스로 그리기(2수준)/ 마트 전단지 이용해 팔빙수 도안 꾸미기
언어	[말하기] 가상캐스터 되어 여름 날씨 소개하기 [읽기] '팔빙수의 전설' 동화 듣기(1수준)/ 스스로 읽기(2수준) [말하기/듣기] '아 용딩이다' 용판 자료 조작하며 이야기하고 듣기 [읽기/쓰기] 여름 과일 사진과 이름 매칭하기(1수준)/ 빈 글자 따라 쓰기(2수준)/ 스스로 쓰기(3수준)
수.과학 (조작)	[탐색] 여름 일기예보 영상 관찰하기/잠수고 영상 관찰하기 [조작/실험] 부채와 건전지 선풍기 조작하며 바람 비교하기 [패턴] 여름과일 패턴 만들기 [게임] 여름과일 메모리 게임 [실험] 우유얼음 만들어 변화 과정 관찰하기

[그림 1] 혼합연령반 주간계획안 예시1

<p><b>[역할연예 '해님 달님' 놀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속 다양한 인물 역할 경험하기 ▶ 해설자 역할 경험하기(2수준) ▶ 공연 상황극: 관객, 사회자 역할 추가</li> <li>- 동생 반 초대 공연 시 준비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li> <li>- &lt;해님달님&gt; 장면 보며 이야기 회상하기(1수준)/대사 및 이야기 꾸미기(2수준)</li> <li>▶ &lt;음률 연계&gt;</li> <li>- 장구, 북, 소고 등 타악기로 공연 시작 알리기, 효과음 표현하기</li> <li>▶ &lt;미술 연계&gt;</li> <li>- 작품 속 나무 배경 꾸미기 (협동작품)</li> </ul>	<p><b>[미술 '호랑이와 개차' 반쪽 민화 꾸미기(1수준) / 그리기(2수준)]</b></p> <p><b>[과학 두레박 우물 호보 탐색하기(1수준) / 두레박 구성하기(2수준)]</b></p> <p><b>[언어 전통놀이 2-4장 조각 글자패를 맞추기]</b></p> <p><b>[언어 '해님 달님이야기' 듣기]</b></p> <p><b>[수조작] 민화 퍼즐 맞추기(1수준) / 밑 도안 보지 않고 맞추기(2수준)]</b></p> <p><b>[수조작] '옛 물건 기억력 게임(36장)', '비밀방' 게임하기]</b></p>	<p><b>[쌓기 앞마당 우물 만들기]</b></p>  <p><b>&lt;역할 연계&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 우물 물 길러 요리하는 횡내하기</li> </ul> <p><b>[비계획된 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 두레박 우물 호보 탐색하기(1수준) / 두레박 구성하기(2수준)</li> </ul>
--	---	--

[그림 2] 혼합연령반 주간계획안 예시2

혼합연령반에서 유아의 '발달권'을 존중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은 유아의 수준에 맞는 활동과 일과를 계획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개별적인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가 이루어져야 유아가 흥미를 느끼며 놀이에 참여할 수 있고, 발달에 적합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

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의 발달과 능력을 고려하여 보육 활동을 계획할 때 재료를 다르게 제공하거나 활동의 수준을 나눠 계획하였고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에서도 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발달 수준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수준이 다른 놀잇감을 제공하거나 수업을 진행할 때 교육활동의 기법을 다양하게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혼합연령반은 다양한 연령의 유아로 이루어진 반이기 때문에 수준 차이를 고려해서 운영해야 하죠. (중략) 수업을 계획할 때 메모리 카드 게임의 경우에 만 3세는 메모리 카드의 위치를 기억하고 바로 찾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색깔을 구별해서 제공하거나 아니면 개수를 줄여서 제공해서 줘요. 이처럼 계획할 때 만 3세 발달 수준에 맞게, 만 4세 발달 수준에 맞게 계획하려고 노력했어요.

(C교사, 2021.07.03.)

아래연령 유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지나 언어적인 부분, 대부분의 발달에 있어 (윗연령 유아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활동을 설명할 때 그림 자료나 사진 자료를 조금 더 제공하였어요. 그리고, 활동을 진행할 때 수준이 다른 두 가지 놀잇감을 주었어요. 만약 구슬치기 놀이라고 한다면 긴 테이블을 제공해서 구슬을 굴려서 놀이할 수 있는 것과 그 옆에 박스를 제공해서 구슬을 재밌게 굴러보는 놀이로 나눠서요.

(B교사, 2021.07.21.)

(활동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1, 2수준으로 나누는데 특히, 미술활동에서는 미술 기법을 다르게 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비 그림을 물감 이용해서

그리는 활동에서 만 4세 친구들은 붓을 이용해 빗방울 모양을 직접 만들어보았어요. 그리고 만 4세가 직접 물감을 짜고 물이랑 섞어서 어떤 농도에 맞춰서 사용할지도 스스로 조절했었어요. 만 3세 친구들은 교사가 직접 여러 가지 물감을 짜놓고, 만 3세가 하고 싶은 색깔을 선택해서 손가락이나 동그란 모양의 재활용품으로 찍어 빗방울 모양을 만들었어요.

(H교사, 2021.08.15.)

위의 사례와 같이 혼합연령반 교사는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의 기법을 사용하고 연령별로 놀잇감을 다르게 제공하여 혼합연령반에서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학습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C교사는 같은 모양의 카드를 대응시켜 맞추는 메모리 카드 게임을 계획할 때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기 어려운 아래연령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같은 그림의 메모리 카드에 따로 색깔을 구별하거나 개수를 줄여 제공하였다. B교사는 구슬치기 놀이를 진행할 때 윗연령의 유아는 긴 테이블 위에서 구슬을 굴려 다른 구슬을 맞춰보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아래연령의 유아는 박스 안에 구슬을 넣어 굴려서 다른 구슬을 맞춰보는 활동을 진행하며 활동 수준의 차이를 두었다. H교사는 빗방울을 표현하여 비 그림을 표현해보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미술활동을 진행할 때 윗연령의 유아는 붓을 이용해 빗방울을 그려보고 농도를 조절해서 비 그림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반면, 아래연령의 유아는 붓으로 빗방울을 그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손가락이나 재활용품을 물감에 찍어 비 그림을 표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수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유아의 발달권을 존중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혼합연령반 교사가 연령이 다른 유아의 발달을 인지하고, 연령에 따른 유아의 발달 수준과 능력에 맞는 놀이와 교육을 지원하여 유아의 ‘발달권’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3) 유아의 개별적인 발달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혼합연령반 교사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개별적인 발달 특성에 맞는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함으로써 유아의 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을 개별적인 발달 특성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들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을 발달과 연관 지어 인식한 모습은 이숙희와 강병재(2002)의 연구에서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 유아의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쳐 기본생활습관이 좋은 유아가 발달적 수준도 높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사례이다.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때 목표를 중간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유아는 도움을 주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유아는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지도하며 혼합연령의 자조 기술을 지원하고 있었다.

낮잠을 자고 나서 이불을 정리할 때 만 3세는 이불과 매트를 접는 것을 힘들어하는 유아도 있고, 이불과 매트를 접을 수 있지만 매트를 이불장 안으로 옮기는 건 힘들 수 있어요. 또 만 4세는 이불과 매트를 스스로 접어 이불장 안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한 유아가 있지만, 이불장으로 옮기기를 어려워하는 유아도 있어요. 이처럼 유아 발달에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유아에게 자신의 이불을 정리하여 매트를 접어놓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별적으로 매트를 이불장으로 옮길 수 있는 유아는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C교사, 2021.07.03.)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때 항상 유아의 연령을 고려해야 하지만 윗연령에 맞추면 아래연령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고 아래연령에 맞추면 윗연령이 생각하기에 너무 쉽기 때문에 중간목표를 세워요. 일단 기본생활습관의 목표를 중간수준으로 설정해놓고 개별적인 차이에 따라서 맞춰줘요.

(J교사, 2021.09.02.)

혼합연령반에서 교사들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때의 기준을 윗연령의 유아에게 맞추면 아래연령 유아의 발달 수준에 비해서는 높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아래연령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기본생활습관의 목표를 설정하면 윗연령 유아의 발달에 비해서 낮게 판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 유아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중간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게 됨을 이야기하였다. 즉,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반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때 모든 연령의 유아가 인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중간의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지도 방법은 유아가 발달에 필요한 자조 기술과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돕는다고보다는 효율적인 혼합연령반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A교사와 D교사는 혼합연령의 중간 목표를 설정하여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아의 발달에 맞게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의 발달 수준에 따른 교사의 지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혼합연령은 유아들의 발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 반은 소근육에 있어서 발달 차이가 크게 나요. 기본적으로 유아가 양말을 신고 벗을 때 만 4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말을 신고 벗는 연습을 많이 했고 소근육이 더 발달하여 있으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만 3세 유아는 양말을 신고 벗는 것이 어려우니까 신지 않고 옆에다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개별적으로 양말 신고 벗을 때나 옷걸이에 옷을 걸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놓으면 돼”라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A교사 2021.06.16.)

혼합연령반은 유아마다 개별 차이가 커요. 저희 반에서 실외활동 나갔다가 들어올 때 외투를 옷걸이에 걸 때 4세는 정말 빠르게 정리하고 손을 씻으러 가는데 만 3세 유아는 보통 스스로 옷걸이에 옷을 걸어 정리하는 것을 힘들어하죠. 특히 소근육 발달이 미숙한 유아는 옷걸이에 옷을 끼워 넣는 것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교사가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요.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선에서는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죠.

(D교사 2021.08.01.)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여러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지내는 혼합연령반에서는 유아의 발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인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도움을 주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A교사의 반에서는 특히 소근육에 있어서 발달 차이를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양말을 신고 벗는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때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각 연령의 유아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맞는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D교사는 유아의 개별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해볼 수 있게 기다려주고, 유아가 옷걸이에 옷을 끼우기 어려워하면 개별적으로 방법을 알려주면서 유아의 발달에 맞는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이처럼 혼합연령반은 유아의 개별적인 발달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든 유아가 적합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여유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2. 혼합연령반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혼합연령반 교사들이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을 실천하는 보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유아의 건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

혼합연령반 교사들이 유아의 건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대부분 부모의 요구와 연관되어 나타났다.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특정 연령의 부모가 낮잠 시간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낮잠 시간에 다른 교육 활동이 진행되기를 바라거나,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급식 시간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 (1) 낮잠 시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생각 차이로 인한 어려움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연령과 상관없이 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낮잠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수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윗연령 유아의 부모들은 윗연령의 유아에게 낮잠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

각하여 혼합연령반 낮잠 시간에 다른 교육 활동이 진행되기를 바랐다.

만 4세 유아 부모님이 만 4세는 낮잠을 안 재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잠 시간에 만 3세와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한글이나 영어 공부를 시켜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만 4세 유아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혼합연령반 안에서 따로 분리해서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하지 않으니 부모님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죠.

(E교사, 2021.06.14.)

만 4세 유아의 부모님이 유아가 만 4세가 되면 잠이 줄어들니까 낮에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 일찍 자기 힘들어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 4세 유아가 왜 낮잠을 자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시고, 낮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잠 시간에 다른 활동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신 부모님이 있어요. (중략)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유아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억지로 낮잠을 자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에서 긴 시간 동안 있으니 휴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유아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데 부모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 힘들죠. 그래서 부모님께 유아도 휴식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H교사, 2021.08.15.)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낮잠 시간 및 휴식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주로 윗연령 유아의 부모가 낮잠 시간에 윗연령의 유아는 낮잠을 자지 않고 한글이나 영어 등의 교과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운영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권리존중보육의 실천자로서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

각하였다. 이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낮잠 시간에 유아의 생존권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생존권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무와 부모의 무리한 요구가 상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잠 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혼합연령반 특성상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가 한 반으로써 운영되기 때문에 한정된 어린이집 공간 속에서 혼합연령반 교사가 낮잠 시간에 윗연령 유아를 위해 따로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가 유아의 교과 학습을 위해 직접 유아를 지도하는 일은 한정된 인력 속에서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낮잠 시간에 교과 학습을 요구하며 낮잠 시간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모를 이해시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낮잠 시간이 유아의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휴식을 취하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가정과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혼합연령반 교사가 부모의 요구로 인하여 유아의 낮잠 시간을 충분히 존중해주지 못한 경험을 이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부모님이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면 집에서의 밤잠이 늦어지기 때문에 30분만 자고 깨워달라고 하세요. 교사가 낮잠을 자는 유아를 어쩔 수 없이 30분 뒤에 깨우면 유아는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오후 활동 시간에 피곤해해요. 유아를 깨우는 교사의 마음은 너무 안 좋죠. (중략) 유아가 너무 피곤해하면 더 재우겠다고 (부모에게) 말씀드렸어요. 유아의 낮잠 시간을 존중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요구가 강하니까 자꾸 충돌이 생겨요.

(G교사 2021.08.15.)

G교사는 윗연령의 유아가 낮잠 시간의 수면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밤잠이

늦어진다고 생각하여 30분만 자게 하고 깨워달라는 부모의 요구에 몹시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해당 부모의 요구가 강하다 보니 교사는 유아를 30분만 자고 깨우려고 하니 잠이 많은 유아는 일어나기 힘들어하였고, 오후에 진행되는 일과 속에서도 피곤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G교사는 부모에게 유아가 30분만 자고 일어나기 힘들어할 경우에는 개별상태에 따라서 더 잘 수 있도록 깨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유아의 낮잠 시간을 존중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처럼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반에서 유아의 질 높은 생존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이 좀 이해해주고 양해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혼합연령반에서는 유아의 연령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또한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의 협조가 부족하거나 요구가 다양하다면 낮잠 시간의 운영이 어려워지죠.

(A교사, 2021.09.20.)

위의 사례와 같이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특정 유아의 개인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부모들의 요구로 인해 혼합연령반의 낮잠 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보낼 때 혼합연령반에서는 연령이 다르므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부모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혼합연령반 교사가 혼합연령 유아의 ‘생존권’을 존중하며 보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 급식 시간에 대한 부모의 개별적인 요구로 인한 어려움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급식 시간에 지극히 개인적인 유아의 식습관에 관련한 부모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아마다 식사량이 다르잖아요. 저희 반에 지연이는 식사량이 정말 적은 친구라서 밥과 반찬 양을 먹을 수 있는 만큼 지연이가 정해서 덜어서 먹고 있었어요. (중략) 그런데 지연이 부모님께서 지연이는 원래 반찬을 잘 먹지 않고 집에서도 반찬을 거부하니까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을 때 아예 반찬을 덜어서 제공해달라고 하셨어요.

(G교사 2021.08.15.)

저희 반에 야채를 잘 먹지 않는 유아가 있는데, 죽에 나오는 야채들은 식감이 부드러우니까 거부감 없이 먹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야채 반찬이 나왔을 때, 작게 잘라서 조금씩 맛을 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그 유아의 부모님은 아이가 야채를 먹지 않으니 급식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밥 대신에 죽을 먹여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어린이집의 식사는 모두 균형 잡힌 식단을 바탕으로 제공되는데, 그 유아가 죽만 먹게 된다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C교사, 2021.07.03.)

위의 사례와 같이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개별적인 식사 습관과 식사량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유아의 신체발달과 건강을 위해서 급·간식시간에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G교사는 식사량이 적은 유아는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양을 조절하여 먹어보도록 격려하였다. 또한, C교사는 편식하는 유아가 야채 반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조금씩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충분하고 고른 영양섭취보다는 개별적인 식사 습관에 중점을 둔 부모는 교사에게 개별적인 급·간식시간이 운영되기를 요구하였다. G교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연이가 집에서 반찬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지연이가 먹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먹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반찬을 덜어서 제공하기를 바랐다. 또한, C교사의 사례에서는 야채를 잘 먹지 않는 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죽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요구에 유아가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급·간식시간에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인 식단을 요구하는 부모로 인해 급·간식시간에 유아의 생존권을 진정으로 존중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유아의 삶 속에서 ‘생존권’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실천도 중요하다. 즉,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생존권’이 가정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유아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가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2) 유아의 의사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

혼합연령반 교사는 어린이집 일과에서 유아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보육을 통해 유아의 참여권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참여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원장과 교사의 다른 운영 가치관, 교사 개인이 바꾸기 어려운 기관 분위기와 전통, 유아의 의견이

수용되기 어려운 특별활동 시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1) 교사와 신체활동 운영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원장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의사가 반영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통해 유아의 ‘참여권’을 존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혼합연령반 교사는 신체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과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원장님은 유아가 다치지 않도록 보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유아가 다치는 것에 너무 예민하다 보면 유아가 신체활동을 하거나 달리기 놀이할 때 어쩔 수 없이 제한하게 되고, 뛰지 못하게 해요. 교사의 입장에서는 유아가 뛰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권리존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혼합연령반에서는 윗연령의 유아가 달리기할 때 더 빠르고 정교하게 뛰니까 윗연령 유아와 아래연령 유아가 동시에 달리기하지 못하게 하죠. 두 연령이 같이 달리기했다가 다치게 되면 아주 곤란해져요.

(D교사 2021.08.01.)

윗연령의 유아와 아랫연령의 유아가 같이 점프를 하다가 부딪혔는데, 아랫연령의 유아가 뒤로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원장님이 유아들이 다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편이라, 그 일이 있고 나서 (원장님께) 여러 번 불러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아들이 다치지 않게 점프를 못 하게 했어요.

(C교사, 2021.06.01.)

위의 사례와 같이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유아들의 안전

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사가 유아의 신체활동을 지속해서 제한하게 됨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혼합연령반에서 윗연령의 유아와 아래연령의 유아의 신체발달 차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두 연령이 함께 달리기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합연령반 교사의 행동은 혼합연령이 함께 마음껏 달리기하거나, 점프하는 등의 신체활동을 즐기고 싶은 유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장과의 가치관 충돌로 인하여 번거로운 갈등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유아가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교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혼합연령반 교사는 신체활동시간에 유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유아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유아의 참여권을 제한하게 되었다.

하지만 혼합연령반 교사가 유아의 참여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는 유아의 의견을 지나치게 제한하기보다는 더 넓은 장소를 마련하거나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교사 개인이 바꾸기 어려운 기관의 분위기와 전통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일과를 운영하고, 유아의 참여 의사에 따른 어린이집 전통 행사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유연하지 않은 기관의 운영방침과 분위기로 인하여 유아의 ‘참여권’을 존중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관마다 정해진 루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어린이집의 6세 단일연령

반에서는 낮잠 시간을 따로 갖지 않는 곳이 있어요. 저희 반 6세는 유아의 인원수가 적고, 6세 유아들이 낮잠을 자고 싶지 않다고 직접 표현도 했기 때문에 저도 6세 유아들은 낮잠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기관에서는 그동안 혼합연령반을 운영할 때 5세와 6세가 같이 낮잠을 자는 일과 보냈었어요. 그래서 교사 차원에서 6세의 낮잠 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원래 원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깨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I교사, 2021.08.04.)

I교사 반의 만 4세의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고 보통 늦게 등원하고 일찍 하원하기 때문에 만 3세와 함께 낮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만 4세도 낮잠을 자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I교사는 만 4세 유아의 의사가 존중된 낮잠 시간을 일과에 반영하고 싶었다. 하지만 I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실행되어왔던 혼합연령반의 정해진 일과가 있었기 때문에, I교사가 자율적으로 어린이집 낮잠 시간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듯 I교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낮잠 일과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유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혼합연령반 교사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혼합연령반의 운영방침과 기관의 분위기가 유아의 ‘참여권’을 실천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가 유아의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권’을 실천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합연령반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사의 판단에 따라 일과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기관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전통적인 행사로 인해 유아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 경험을 하였다. 이에 대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음악회를 진행해요. 음악회 시즌이 되면, 음악회를 준비해야 하는 교사와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음악회 연습을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유아 모두 피곤한 시간이 되죠. 매년 진행되는 어린이집 큰 행사라 준비를 안 할 수도 없어요.

(A교사, 2021.09.20.)

어린이집에서 매년 만 4세의 작품과 만 5세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 전시회를 준비하려면 유아가 미술 작품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미술활동에 관심이 없는 유아는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유아만 작품이 없으니까 교사가 주도해서 미술 활동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어요.

(J교사, 2021.09.02.)

위의 사례와 같이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매년 진행되어온 전통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 유아의 의사를 존중하기 어려워하였다. A교사의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큰 음악회가 진행되어 A교사의 반 유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연을 연습해야 했다. 이로 인하여 A교사는 음악회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참여하기 싫은 유아를 억지로 연습시켜야 함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J교사는 매년 진행되는 미술 작품 전시회로 인해 미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유아로부터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야 했다.

이처럼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전통 행사가 유아의 '참여권'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였지만,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매년 진행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의사가 반영된 보육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전통 행사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유아의 의사를 반영한 행사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관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유아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특별활동시간으로 인한 어려움

혼합연령반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특별활동 시간으로 인해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특별활동 시간에 유아의 수준이 달라서 연령을 나눠서 진행해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서로 방해가 돼서 한 그룹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30분씩 놀이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유아의 입장에서 연령을 나눠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30분 놀다가 바로 수업 하러 들어가야 하고 (중략) 유아의 흥미나 의견에 따라 일과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E교사, 2021.06.14.)

영어와 음악 특별활동은 연령별로 나눠요. 특별활동 시간은 유아가 주도해서 일과를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수업을 먼저 듣고 싶어도 윗연령의 유아가 먼저 들어야 하고, 그때 (수업을 듣지 않는) 아랫연령의 유아는 조용한 놀이를 해야 하는데, 실내 자유놀이 시간 처럼 놀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유아가 “(특별활동)수업을 듣지 않고 더 놀이할래요”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이 특별활동 해야한다고 말하죠.

(D교사, 2021.08.01.)

특별활동하면 반씩 그룹을 나눠서 해야 하는데, 교실에서 먼저 윗연령의 유아가 수업을 들으면 아랫연령의 유아는 교실 옆에 작은 도서 공간에서 책을 보면서 기다려요. 아랫연령의 유아는 책을 보다가도 교실 안에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계속 문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에 경

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교실 공간이 넉넉하다면 따로 분리돼서 동시에 같이 특별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교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아요.

(A교사, 2021.06.16.)

위의 사례와 같이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특별활동시간에 30분씩 나눠서 수업을 듣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혼합연령반 교사는 특별활동 수업을 기다리는 30분의 시간 동안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특별활동수업이 유아의 흥미나 의견이 반영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특별활동 과목을 유아가 결정하여 들을 수 없는 것과 수업을 듣는 순서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활동 시간은 유아의 '참여권'이 지켜지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A교사의 사례와 같이 어린이집의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특별활동처럼 분리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유아의 의사를 반영한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이 유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유아의 의사를 반영한 특별활동시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융통성 있는 공간 활용이 요구되는 바이다.

### 3)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보육과정 운영하며 유아의 놀이욕구와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유아의 발달권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발달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은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과 기타 업무로 인해 개별적인 보육을 신경 쓰지 못하

는 현실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혼합연령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접하기 쉽지 않아 혼합연령의 발달에 맞는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충분하지 않은 교사의 수업준비 시간으로 인한 어려움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반에서 유아의 ‘발달권’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령과 발달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하여 혼합연령반 교사는 보육 활동 계획을 할 때, 수업을 준비할 때, 수업을 진행할 때, 일상생활 및 자조 기술에서 수준을 나눠 일과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한정적인 수업 준비시간으로 인해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을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단일연령반 보다 혼합연령반을 맡았을 때 퇴근이 늦어진 적이 많아요. 혼합연령반은 유아의 수가 많기도 하지만, 각 연령의 발달 능력과 수준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1, 2수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3수준까지 나눠야 할 때가 있어요. 6세 중에서도 6세 초반 수준, 6세 후반에서 7세 초반 수준, 7세 후반 수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계획해요. 그리고 유아의 수준에 맞는 놀잇감을 준비하다 보면 제 업무 시간 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죠.

(J교사, 2021.09.02.)

단일연령반 담당할 때는 교재교구를 만들어도 대체로 한 수준에 맞춰서 똑같은 교재교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교사가 상호작용을 다르게 하는 차이를 두었어요. 그런데 혼합연령반은 아예 두 가지 수준의 교재교구를 만들어야 해요. 두 가지 수준의 교재교구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차이를 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필요해요. 하지만 개인 교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정도 인데, 그 안에 바로 해결될 수 있죠. 그래서 수업 준비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수준별로 교재교구를 만드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러면 퇴근을 늦게 하거나 퇴근을 제시간에 하고 싶다면 수준별로 나눠 제공해야 하는 교재교구를 포기 하는 거죠.

(C교사, 2021.05.01.)

혼합연령반은 유아들의 수준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눠야 해서 수업 준비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업할 때 두 연령이 있다 보니까 두 연령에 맞는 놀이와 상호작용을 하느라 교사의 에너지 소비가 두 배로 드는 것 같아요. 수업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 3세 유아는 어려워하고, 만 4세 유아는 흥미를 잃어 놀이가 확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맞는 놀이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데 정작 수업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죠.

(H교사, 2021.10.17.)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반에서 다양한 연령의 유아가 함께 생활하지만, 그 안에서 연령에 맞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수준을 2~3개로 나눠 발달에 맞는 놀이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연령을 고려해서 수준을 나눈 계획안, 단계별 활동, 수준이 다른 2~3개의 놀잇감,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일과 진행으로 인해서 업무가 단일연령반에 비해 과중하게 지워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에게 주어진 수업 준비시간은 한정되어 있었고, 단일연령반에 비해 수준별로 나눈 계획과 여러 가지 놀잇감을 비치하는 등의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결국에는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게 됨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연령이 다른 유아의 발달에 맞는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수준별과 연령별로 나눠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가중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교육 활동의 수준을 윗연령의 유아에게 맞추면 아래연령의 유아가 너무 어려워하고, 아래연령의 유아에게 맞추면 윗연령의 유아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B교사는 혼합연령반에서 일과를 운영할 때 교사가 항상 두 연령의 유아의 수준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결국에는 교사가 한 교실에 수준이 다른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되고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교사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 안에서 두 가지 수준 차이를 숙지해야 하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두 연령이 있다는 건 두 연령에 대한 지식이 교사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데 기본생활 습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발달에 맞게 지원해 줘야 하니까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에너지 소모가 단일연령보다는 두 배로 드는 것 같아요.

(B교사, 2021.08.04.)

B교사는 교사가 일과를 운영할 때도 항상 두 연령을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크지만, 유아들의 발달에 맞는 기본생활 습관과 일상생활도 지도해야 하므로 신체적으로도 많이 움직이게 돼서 결국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 소모가 단일연령반에 비해 크다고 느꼈다. 이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혼합연령반을 운영할 때 정신적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보인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보육 활동에서 유아의 발달권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행위자로서 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이외의 교사의

실제적인 휴게시간의 보장과 혼합연령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 준비를 도울 수 있는 보조 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 (2) 교사의 과중된 업무로 인한 어려움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교사의 관심과 지원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보육 이외의 업무로 인하여 정작 중요한 개별 보육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개별적으로 지원을 많이 못 해주는 점이 아쉬워요. 유아의 수가 많고 또 연령도 다르다 보니까 서류도 각 연령에 맞게 준비해야 하고 (중략) 7세 유아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요. 아무래도 학교 같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또 그거에 따른 계획서, 평가서가 나와야겠죠. 서류가 많아서 유아에게 오히려 개별적인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이 미안하죠.

(D교사, 2021.08.01.)

혼합연령반을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은 교사의 업무량과 연관이 있어요. 교사가 해야 할 서류 부분이 조금 간소화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교사는 유아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혼합연령반에서는 개별 흥미 지원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아주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매일 쌓여가는 서류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유아의 개별 흥미를 지원하는 데 시간을 많이 못 쓰게 되죠.

(E교사, 2021.08.18.)

위의 사례와 같이 D교사의 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가 필요한 만 5세 유아를 위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D교사는 혼합연령에 따라 다르게 준비되고 운영되는 특성화 프

로그래를 준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서류 업무가 많아짐을 경험하였다. 결국 교사는 보육 이외의 특성화 프로그램 준비와 서류 업무로 인하여 유아의 개별성에 더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E교사 또한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와 연령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교사가 해결해야 할 업무의 양은 누적된다고 말한다. 그로 인하여 오히려 교사의 관심과 시간이 유아에게 향하기보다는 쌓여있는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혼합연령반 안에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의 활동과 서류 업무로 인하여 각 연령에 맞는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개별적인 보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가 유아의 개별적인 발달에 맞는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업무가 축소되고, 혼합연령반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각 연령의 프로그램 활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미비한 혼합연령 유아의 발달에 대한 교육으로 인한 어려움

혼합연령반 교사는 단일연령반에 비해서 혼합연령반을 특징으로 한 교사 교육을 접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혼합연령반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발달 차이로 인해서 발생 되는 교사의 어려움이 있지만, 혼합연령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혼합연령에 대한 발달 교육이나 보육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지침서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각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일과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혼합연령반을 위한 교육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혼합연령반을 맡게 되었을 때, 감을 잡기 어려웠어요. (중략) 혼합연령은 특히 발달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각 연령의 발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D교사, 2021.08.01.)

두 연령이 함께하는 반인데 분명히 발달 차이가 같은 연령 반보다는 많이 나잡아요. 그런데 그 발달 차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갈등 상황에서도 발달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줘야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혼합연령반과 관련된 교육이 없으니까, 교사가 스스로 공부하거나 비슷한 교육을 찾아 들어야 해요.

(A교사, 2021.06.16.)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의 발달을 고려한 교수 방법과 일과운영에 대해 참고할 만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반은 다양한 연령과 발달 차이로 인하여 단일연령반에서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것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고 한다. 또한, 보육 현장에서 단일연령반 보다 혼합연령반이 ‘소수’이기 때문에 교육을 쉽게 접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을 운영할 때 혼합연령 유아의 발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연령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혼합연령반 교사가 생각하는 권리존중보육의 의미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혼합연령반 교사들이 생각하는 권리존중보육의 의미와 실천을 위한 노력

첫째,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권리존중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아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생존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돕는 보육이 권리존중보육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교사는 유아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서영미(2020)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영유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보고 보호하는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이희경과 이정원(2017)의 연구에서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권리를 인식할 때 안전과 관련된 생존권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하여 보육교사들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자신의 생존권을 인식하기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유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권리에 대한 개념을 주로 보호권으로 두고 있다는 윤매자(2010)의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생존권을 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가 아동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어 보호권을 따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각 연령의 신체발달 수준이 다름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신체활동 기구의 배치와 개수를 차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활동 시간을 운영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안전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할 때 모든 연령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대집단 시간에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연령별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나은숙과 양지에(2011)의 연구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는 면에서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고된 것과 유사하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들이 모든 연령의 유아가 안전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집단 시간과 더불어 소그룹 활동을 추가로 진행한 모습은 혼합연령반에서는 단일연령반과는 달리 교사가 개별적인 지도방침과 전략을 연구하여 연령이 다른 유아의 이해를 돕는 교수방법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김명숙(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급·간식시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다양한 연령의 발달 차이를 고려한 급·간식시간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식사 시간이 서로 다른 유아를 배려하기 위해 다음의 정해진 일과를 진행하기 위해 빨리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아닌 자신의 식사 시간과 식사 습관에 맞춘 개별적인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나눠 다음 일과를 운영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가 오전 시간 활동들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도록 돕고 유아의 신체 발달을 돕는 낮잠 시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낮잠 시간이 유아의 에너지 회복과 신체 발달을 돕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한 박윤자와 이대균(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의 낮잠 습관과 수면 시간에 대해 이해하고, 각 연령에 맞게 유동적으로 낮잠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줄어든 낮잠 시간으로 피곤해하는 아래연령 유아는 먼저 잘 준비를 하도록 하여 충분한 낮잠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찍 일어난 윗연령의 유아는 계속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책 읽기 등의 조용한 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처럼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신체활동 시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급·간식 시간과 낮잠 시간을 통해 유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권리존중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아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와 유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돕는 보육이 유아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보육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의사 표현을 격려하고 어린이집 일과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는 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의 참여권이 주로 의사 표현을 중심으로 언급되었으며 영유아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가 수용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한 박정인과 나귀옥(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교사가 유아의 참여권을 존중하는 일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실 안에서 유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기호가 고려된 선택이 허용되어야 한다(민영은, 임민정, 2019).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의 특성인 다양한 연령의 또래와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통해 유아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는 유아가 자신의 참여권을 인식함과 더불어 타인의 참여권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권리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유아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 영유아의 권리가 소중함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보고한 이용교(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에서 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적 삶의 능력을 길러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한 김진숙(2009)의 연구 결과와 같이 유아가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자,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의견이 반영된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아를 고유한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교사는 유아와 소통할 때 유아의 의견을 물어보고 수용하는 어조를 사용하는 등의 대화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유아의 의견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나 장소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유아의 참여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실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정한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신의 교수 실체를 반성하고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한 정혜영과 구은미(201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가 어린이집의 일과 중

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를 확장하고 유아의 의견이 반영된 일과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유아의 참여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반에서 윗연령 유아와 아래연령 유아 간의 의사소통에 갈등을 겪는 상황과 대집단 활동 시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각 연령 간의 의사 표현 및 의사결정의 권리가 공평하게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윗연령 유아와 아래연령 유아의 갈등 상황에서 언어표현이 미숙한 아래연령 유아가 다소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두 연령의 상황을 언어로 다시 표현해주거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바뀌 말하는 등 윗연령 유아와 아래연령 유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평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혼합연령반에서 나이가 많은 유아가 어린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태도를 보여 교사가 모든 연령의 유아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배지희, 황인애(2007)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혼합연령반에서는 윗연령과 아랫연령 유아의 능력에 있어서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안유리, 이대균, 2012) 교사가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고 유아 간의 평등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깊은 지도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원활한 일과의 운영을 위해 혼합연령 간의 갈등 상황이 길어질 경우 교사의 편의와 주도하에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주로 사회적 기술이 더 정교하고 교사의 언어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윗연령 유아의 양보에 대한 권유로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윗연령 유아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나이가 많으므로 인하여 양보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준호와 홍용희(2006)의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유아들이 교사가 윗연령 유아에게 윗연령다움을 강조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양보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가 윗연령에게 양보를 권유하며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 모습은 혼합연령반 교사가 윗연령 유아들에게 아래연령의 유아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언급을 자주 하였다고 보고한 박경희(2010)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혼합연령반에서 모든 연령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혼합연령반 교사는 윗연령의 유아의 의견과 관계없이 양보를 강조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아야 하며, 의사결정에 유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갈등 상황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윗연령 유아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대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는 아래연령 유아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윗연령 유아가 주로 교사의 의견에 잘 따라오고, 교사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집단 활동을 할 때 윗연령 유아의 의견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됨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대집단 시간의 운영은 윗연령 유아에게는 교사에게 필요한 대답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며, 아래연령 유아에게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즉, 윗연령 유아와 아래연령 유아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은 모든 연령 유아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교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유아의 의견이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연령의 유아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의 주체자가 되어 참여할 수 있고, 교사의 질문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유아의 감정과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권리존중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아의 ‘발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며 발달하기 때문에 유아의 놀 권리가 잘 지켜지는 보육이 유아의 발달권이 잘 지켜지는 보육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발달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실내 자유 놀이 시간에 유아의 흥미를 반영하고 발달 수준을 고려한 놀이와 활동을 계획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영(2017)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가 놀이를 통해 유아의 권리를 인식하게 하고, 교육하여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발현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단일연령반에 비해 혼합연령반에서 유아가 폭넓은 발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유아의 발달권이 더 실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가 다양한 연령의 또래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행동을 관찰하며 배우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성장·발달 측면에서 유아의 발달권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하여 유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였으며 발달에 맞는 놀이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 유아의 발달과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과 교재교구를 준비하여 모든 연령의 유아가 자신의 발달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가 보육 활동 시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에서도 유아의 연령을 고려하며 놀이와 활동에 대한 유아의 이해를 도와 유아의 교육을 받을 권리인 ‘발달권’이 실천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유아의 발달과 능력을 이해한 것을 기초로 영유아권리존중을 실행해야 한다고 보고한 고영윤과 신현정(201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교사가 영유아권리존중의 실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아마다 고유한 기질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서영미, 2020) 혼합연령반에서 교사가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이 반영된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 및 자조 기술을 지도하여 유아의 ‘발달권’을 지원하였는데, 다양한 연령으로 인한 발달 차이와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혼합연령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유아가 인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기본생활습관의 공동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교사의 지도 방법은 유아가 발달에 필요한 자조 기술과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돕는다고보다는 효율적인 혼합연령반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 개별적인 지도가 어려운 보육 현장의 현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혼합연령반의 모든 유아가 적합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사가 여유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함과 더불어 교사의 개별적 지원을 도울 수 있는 보조 인력이 요구된다.

## **(2) 혼합연령학급 교사들이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첫째,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건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주로 유아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급·간식시간과 낮잠 시간에 관한 부모의 요구와 관련되어 나타났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연령과 상관없이 낮잠 시간과 휴식시간이 유아의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특정 연령의 부모는 낮잠 시간이 불필요하다고 여겨 낮잠 시간에 수면과 휴식보다는 유아의 교과 학습을 배우는 시간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사의 의무와 부모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른 운영 사이에서 유아의 생존권을 실천하는 낮잠 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권리를 실천하려는 교사가 학부모와의 소통과 갈등 상황으로 인하여 에너지 소모가 많아 결국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고재운(2012)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낮잠 시간은 유아의 에너지 회복과 신체 발육을 돕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므로(박윤자, 이대균, 2012) 모든 유아의 낮잠 시간이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낮잠 시간이 유아의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휴식을 취하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또한 급·간식시간에 대한 부모의 무리한 요구가 유아의 생존권 실천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식사 시간을 통해 유아가 건강하게 살을 유지할 권리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혼합연령반 교사는 급·간식시간에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인 식단을 요구하는 부모로 인해 급·간식시간에 유아의 생존권을 진정으로 존중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영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지만 실행은 낮게 이루어지고, 부모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영유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가정 내에서 자녀의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민영은과 임민정(201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어린이집은 유아, 유아의 가족, 보육교직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운영되므로 교사가 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배제한 채 일과를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부모에게 유아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아의 개별적인 식사 습관에 따른 지도 방법이나 부모 상담을 통해 안내하는

등 교사의 목소리를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생존권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가정과의 연계 방안을 통하여 유아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 특성상 각 연령이 따로 일과를 보내기 어려운 환경과 개별적인 요구만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모의 이해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혼합연령반에서 모든 연령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낮잠 시간과 급·간식시간이 운영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보낼 때 혼합연령반에서는 연령이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부모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 유아의 ‘생존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교사들이 모든 연령의 생존권을 고려한 개별적인 급·간식시간과 낮잠 시간을 운영할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의사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어린이집 일과에서 유아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보육을 통해 유아의 참여권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참여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원장과 교사의 다른 운영 가치관, 교사 개인이 바꾸기 어려운 기관 분위기와 전통, 유아의 의견이 수용되기 어려운 특별활동 시간으로 인하여 실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신체활동 시간을 운영할 때 원장과 신체활동에 대한 운영의 가치관이 달라 유아의 신체활동 참여를 격려하기보다는 제한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원장과의 관계가 교사의 권리존중보육 실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정동재와 김진옥(202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는 교사가 원장과의 가치관 충돌로 인

하여 갈등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유아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교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게 됨을 나타낸다. 즉, 혼합연령반 교사는 신체활동 시간에 유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유아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유아의 참여권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모습은 신체활동을 운영할 시 유아의 생존권과 참여권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음을 내포하며 교사와 원장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 운영의 방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윤진주, 2017). 따라서 혼합연령반에서 유아의 생존권과 참여권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신체활동 운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혼합연령반의 운영방침과 기관의 전통적인 행사, 특별활동 수업으로 인하여 유아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의 구성과 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낮잠 시간을 축소하고 싶었으나 그간 진행되어온 혼합연령반의 일과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과를 조정하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와 더불어 혼합연령반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온 행사를 준비하면서 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참여를 강요해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유아의 참여권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매년 진행해오던 행사를 교사 개인이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유아의 참여를 강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운동회나 작품발표회에서 영유아의 의사와 관계 없이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한 이용교(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따라서 유아의 의사가 반영된 보육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전통 행사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유아의 의사를 반

영한 행사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관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특별활동 시간의 경우에도 유아가 특별활동 과목을 정하여 들을 수 없는 것과 수업을 듣는 순서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의 ‘참여권’이 지켜지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나은숙과 양지애(2011)의 연구에서 유아가 특별활동 시간에 유아의 의사를 존중받지 못하여 참여권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참여권 보장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원장과 동료 교사에게 지속해서 의견을 개진하여(최은혜, 2017) 유아의 참여권이 존중되는 보육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보육 과정 운영하며 각 연령의 놀이 욕구와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유아의 발달권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각 연령의 발달에 맞는 교재교구와 교육을 제공하여 유아의 발달권을 실천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류수정, 2012). 즉,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발달권’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령과 발달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활동의 계획과 준비 단계뿐 아니라 진행을 할 때에도 수준을 나눠 일과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발달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부족과 기타 업무로 인해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수업을 충분히 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며, 개별적인 보육에 신경을 쓰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많은 업무로 인하여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실행하기에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고, 이는 결국 미흡한 수업 준비로 이어졌다고 보고한 최은혜(2017)의 연구와 교사가 서류 업무가 가중될 때 영유아를 지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 결국 영유아 권리

존중보육을 실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서영미(2020)의 연구등을 고려할 때 유아의 발달권을 실천하기 적합한 교사의 근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특히 혼합연령반의 다양한 발달 차이로 인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단일연령반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즉, 교사가 연령이 다른 유아의 발달에 맞는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준별과 연령별로 나눠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가중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 간의 큰 발달 차이로 인해 유아의 요구와 흥미가 다양하여 단일연령반에 비해 혼합연령반 교사의 노력과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김다해(2008))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다.

이외에도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혼합연령반의 상황을 반영한 교육이나 보육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지침서가 미비하여 어떻게 혼합연령의 발달을 고려하여 일과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함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지희와 김은혜(2012)의 연구에 참여한 혼합연령반 교사가 다양한 연령대 유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반으로 각 연령대가 지닌 발달 수준을 살펴야 하나 혼합연령반의 운영과 관련된 적절한 교사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다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교수법을 교육받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혼합연령반 교사가 혼합연령반에 적용할 보육 활동 자료집이 충분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이완정, 2006) 혼합연령반에서 유아의 '발달권'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혼합연령의 발달을 고려한 일과를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 및 참고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가 유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 교육이 요구되며(이미숙, 2010), 혼합연령반 교사가 각 연령의 발달에 관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령반 교사의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노력을 알아보았으며, 혼합연령반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연령반 교사의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생존권, 참여권, 발달권을 중심으로 권리존중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혼합연령반 교사는 보육 속에서 유아의 생존권, 참여권, 발달권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사의 적극적인 보호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활동 시간을 운영하고 개별적인 요구가 반영된 급·간식시간과 낮잠 시간을 운영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가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유아의 능동적인 생존권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모든 연령의 유아가 안전교육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하는 등의 교육전략을 활용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일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스스로 유아의 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과 장소를 점검하여 유아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자리와 일과 시간을 결정하여 유아의 의견이 반영되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윗연령과 아래연령의 유아 간 발달 차이로 인해 갈등

상황에서 불평등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아 간의 의사소통을 도우며 평등한 위치에서 유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하지만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윗연령의 유아에게 양보를 강요하거나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아래연령의 유아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모든 유아의 감정과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와 교육을 통해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서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여 서로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각 연령의 발달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놀이와 활동을 계획하고, 교재교구를 제공하여 유아의 발달권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때 혼합연령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든 연령이 인지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지만, 혼합연령반은 특히 유아 간의 발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혼합연령반 교사가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로 유아의 생존권, 참여권, 발달권을 실천하는 보육과정을 운영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생존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주로 부모의 요구와 관련되어 있었다. 특정 연령의 부모가 유아에게 낮잠 시간이 불필요하다고 여겨 낮잠 시간에 다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나, 유아의 식사 습관에 따라 개별적인 식단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요구로 인하여 교사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간식시간과 낮잠 시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혼합연령반 교사가 혼합연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의 생존권

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참여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원장의 다른 신체활동 운영의 가치관과 교사 개인이 바꾸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전통과 분위기, 유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특별활동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혼합연령반 교사는 신체활동을 진행할 때 유아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지키길 바라는 원장의 운영 가치관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로 인해 유아의 의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혼합연령반 교사는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이전부터 운영되어온 방식과 전통적인 행사로 인하여 유아의 의견을 반영한 일과를 조정하기 어려웠고, 어린이집 행사에 유아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혼합연령반 교사들은 유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관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외에도 혼합연령반 교사는 유아의 발달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수업 준비시간의 부족과 보육 이외의 기타 업무, 찾아보기 힘든 혼합연령에 대한 교사 교육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꼈다. 혼합연령반에서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다양한 연령의 발달 차이를 고려한 수업을 준비해야 하지만 지극히 제한된 수업 준비시간으로 인하여 연령별, 수준별 활동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합연령반은 유아 간의 발달 차이가 커 개별적인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혼합연령반 교사는 보육 이외의 기타 업무와 서류 업무가 많아 개별적인 보육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혼합연령반 교사는 혼합연령반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혼합연령반 교사가 참고할만한 지침서나 보육 활동 자료집이 제

공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혼합연령 발달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법에 관한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혼합연령반의 권리존중보육 실제에 대해서 교사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혼합연령반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혼합연령반 유아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기관의 종류가 직장어린이집 교사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가정, 민간, 국공립 등 다양한 유형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혼합연령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연구 대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며 영아 혼합연령반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영아 혼합연령반 교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혼합연령반에서의 권리존중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혼합연령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혼합연령반 부모를 대상으로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과 개선점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실시된다면 혼합연령반을 운영하는 교사와 혼합연령반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운영 방향모색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혼합연령반 교사의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을 토대로 보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혼합연령반을 운영하고 권리존중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혼합연령반 교사를 위한 교육, 지침서,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진아 (2013).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 연령통합의 의미 탐색.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윤, 신현정 (2018).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심리적 소진이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4), 27-38.
- 고영자, 이완정 (2006). 유아교사의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 유아와 교사의 권리증진을 위한 일 연구. 아동권리연구, 10(1), 1-22.
- 고재운 (1997). 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교육학적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효주, 김혜순 (2020). 보육교사 행복감이 영유아 권리존중실행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4(2), 103-123.
- 곽정인, 나귀옥 (2015).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유아교사의 역할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1001-1026.
- 교육과학기술부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 구미향, 황소영 (2014).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관한 인식 변화 연구. 한국 위기관리논집, 10(7), 119-137.
-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교육권 기초현황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인권의 해설.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권혜진 (2014). 낮잠 시간 영유아 참여권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행수준.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2), 5-30
- 권혜진, 이순형 (2005). 동일연령쌍과 혼합연령쌍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유형 및 수준 비교. 아동학회지, 26(6), 217-236.
- 김견미, 구은미 (2018).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대한 보육교사의 딜레

- 마: 초임교사와 경력교사를 중심으로. *어린이교육비평*, 8(2), 25-48.
- 김경화, 서영숙 (200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혼합연령집단 구성에 대한 재인식 모색. *한국보육학회지*, 6(2), 179-192.
- 김경희, 안소영, 한지숙(2013). 유아교육에서의 아동권리 경험에 대한 아동의 인식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17(2), 175-204.
- 김남희 (2009). 보육실습 경험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변화. *생태유아교육연구*, 8(4), 85-114.
- 김다혜 (2008). 혼합연령 학급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직무스트레스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08). 혼합연령, 팀티칭 학급에서의 교사역할 : 문화기술적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순, 유정은, 이민주, 조향린. (2011). 혼합연령과 동일연령 학급 구성 및 놀이성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455-471.
- 김명희 (2010). 영아반 교사의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실행의 장애요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 이경숙, 이선우 (2010). 조기보육경험 아동의 보육관련 특성, 심리사회적발달 특성에 관한 연구.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3(1), 17-32.
- 김성미 (2012). 어린이집교사의 보육신념, 행복감과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곤, 김주영 (2019). 유아교사의 자존감이 유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역할수행능력 매개역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1209-1226.
- 김수연 (2014). 영아반 보육교사의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 인식과 운영실태.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자, 김규수, 곽상신, 변선주 (2003). 도시 지역 유치원의 통일과 민주 시민 교육 실천에서 나타난 교사의 교수 행동; 통일 사회지향적인 민주 시민 교육 활동 프로그램 모형 준거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2), 73-94
- 김숙자, 김현정, 변선주 (2008).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III.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2(4), 299-323
- 김숙자, 박현진, 조주랑. (2009). 유치원 일일교육계획안의 생활주제와 활동유형에 나타난 유아인권교육 관련 내용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3(1), 25-42.
- 김승권 (2007).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128, 21-36.
- 김시연 (2020). 보육교사의 인성과 교사효능감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애 (2018).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교사효능감,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안나 (2014). 3-5세 누리과정 지도서에 나타난 유아 인권 관련 교육내용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중, 전우천(2010). 개별화 수업체제를 활용한 학급단위 학습지원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4(1), 99-110.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은영 (2017). 영유아 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경험.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이화도 (2017). 영유아 권리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과 경험. 열린유아교육연구, 22(4), 191-214.
- 김은주, 장선화(2013). 무상보육정책으로 영아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전업주부의 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혁신연구, 23(2), 91-111.
- 김정란 (2013). 혼합연령 5세 누리과정 운영실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래 (1999). 권위적 간섭주의와 아동의 참여권: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당화 논의. 아동과 권리, 3(1), 21-39.
- 김정래 (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주영 (2021).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실행 및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구조적 관계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 (2009).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의 의미와 실행수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 서영숙(2012). 영유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내용 항목: 보육교사가 인식한 영유아권리 존중보육의 실행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 8(3), 133-162
- 김진숙, 서영숙, 서혜정(2010). 아동권리교육이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 인식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4(6), 35-60.
- 김태운, 김미숙 (2018).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수준이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인식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97-122.
- 김향자 (2010).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2002). 단일연령집단과 혼합연령집단이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현 (2017). 영유아교사의 영유아권리 인식의 실행 노력에 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6), 127-141.
- 김희자 (2002). 혼합연령반과 단일연령반 만5세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자기중심언어비교 분석.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달숙 (2019). 영유아 보육인권의 본질과 쟁점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12(2), 25-43.
- 나은숙, 양지애 (2011). 유아의 권리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영유아교육.보육연구, 4, 71-93.
- 남경숙 (2006). 집단 구성 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수정 (2012).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 실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후, 반운경, 장여희, 정완식 역(1985). 상황중심 교육의 실제. 서울: 보육사
- 문명란 (2016).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도가 영아권리준중 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영은, 임민정 (2019).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혁신연구, 29(3), 379-404.
- 민윤식 (2014). 소파 방정환 평전. 서울: 스타북스.
- 박경희 (2010). 유아의 연령 간 교류를 통한 친사회성 증진 버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진, 채승희(2020).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영유아권리준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 성격강점의 매개효과. 한국교원교육연구, 37(4), 257-282.
- 박윤자, 이대균(2012). 영아반의 낮잠 시간이 갖는 의미 고찰: 만 1세와 만

- 2세 영아반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2), 187-214.
- 박은연 (2022).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와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2014). 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희, 김성현. (2022). 유아 교사의 인권감수성이 권리존중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 유아권리존중인식의 매개 효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3(1), 283-300.
- 박찬옥, 김성숙, 노희연, 박영숙, 이경진, 최현정, 황지영 (2021). 영유아 지원을 위한 아동생활지도. 서울: 양성원
- 박해연 (2009). 어린이집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희, 김은혜 (2012). 유아교육기관 혼합연령학급에서의 교수 실제와 교사의 어려움. 생태유아교육연구, 11(2), 189-213.
- 배지희, 황인애 (2007). 혼합연령 학급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요구와 반응 양상. 유아교육연구, 27(6), 187-213.
- 백은정 (2013). 대전지역 가정어린이집 만 1~2세 혼합 연령반과 단일 연령반 영아의 발달 수준 비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리 (2006). 해방전 한국인의 아동관 변천 : 1876-1945.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391-417.
- 보건복지부 (2012). 5세 누리과정 연령연계 어린이집 프로그램. 세종:보건복지부
- \_\_\_\_\_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_\_\_\_\_ (2021). 2021년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2016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특별교육.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5).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관리존중.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서미자 (2019). 교사의 전문성발달과 직무만족도가 영유아 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미 (2020).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권리 존중 보육 실행의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25(5), 129-157.
-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 유아권리와 권리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유아교육 보육복지연구. 13(3), 213-232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2003).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서울시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유임 (2007). 영·유아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진석 (2013).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한 해결방안. 융합 보안 논문지, 13(2), 55-66.
- 서혜정, 변미영 (2011). 행복한 수업을 찾아가는 유아교사의 이야기. 아동학회지, 33(3), 149-175
- 서혜정, 이한아 (2011).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에 대한 유아교사의 경험. 유아교육학논집, 15(6), 119-144
- 송지현 (2019).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혼합연령보육 경험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희 (2020). 보육교사의 아동권리인식과 긍정심리자본이 아동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희, 박수경 (2021). 보육교사의 아동권리인식과 긍정심리자본이 아동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5(2), 102-126.
- 신은수 (1996). 혼합연령 집단과 동일연령집단 유아의 사회인지적 능력 비교 분석에 기초한 혼합연령 집단학급의 교수방법 모색을 위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6(1), 139-155.
- 심정보 (2000).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 사람생각, 4, 35-74.
- 안나영 (2020). 보육교사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유리, 이대균 (2012). 혼합연령 학급에서 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대처방법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7(4), 449-484.
- 양옥승 편 (1993). 탁아연구 II. 서울: 양서원
- 엄상희 (2021). 어린이집 보육교원의 공감능력과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서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유선미 (2015).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 활동이 오후 재편성 혼합연령중 일반 유아의 정서 지능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란, 이승연 (2020). 아름유치원 혼합연령학급 유아의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5(2), 47-78.
- 유준호 (2005). 혼합연령 중일반 유아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만 4, 5세 유아의 연령별 특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유준호, 홍용희 (2006). 만 4,5세 혼합연령 중일반 유아들의 관계형성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3), 177-200.
- 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유희정 (2015). 4,5세 혼합연령학급에서의 학급구성원에 대한 유아와 교사의 인식. 한국보육학회지, 15(4), 369-398.
- 육아정책연구소 (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육교사용. 서울: 보건복지부, 세이브더칠드런.
- 육아정책연구소 (2016). 농어촌 유치원 어린이집 실태와 개선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매자 (2010).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관한 자율장학의 효과와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연, 박혜준 (2019). 1, 2세 혼합연령반 놀이에서의 또래 갈등 변화. 한국보육학회지, 19(4), 235-252.
- 윤수정 (2007). 몬테소리 유치원의 혼합연령학급 구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주 (2017).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서 영아반 보육교사가 실행하는 영아권리존중보육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6), 407-417.
- 이경미 (2009).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하루 일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열, 박영신 (2015). 보육교사의 마음챙김, 행복감 및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실행간의 관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4), 487-506.

- 이경희 (2018). 보육교사의 인권의식과 전문성인식이 영유아권리존중보육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범 (1997). UN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의 원리와 이해 방안: 교육권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7-41.
- 이기숙 (2008).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 이명준, 류재택, 정우탁 (2000).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명환 (2005). 독일 유아교육기관의 혼합연령집단 구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1), 1-19.
- 이명환 (2014). 숲유치원 혼합연령반 운영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8(1), 131-153.
- 이미숙 (2010). 영유아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 및 교사 인식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애 (2009).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 강병재 (2002).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유아의 발달 수준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7(2), 243-258.
- 이순형, 최인화, 권미경, 최은정, 김현정 (2011). 유아 혼합연령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이영주 (2017).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영유아권리존중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교 (2004). 아동의 참여권에서 본 영유아보육·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89-110.
- 이용주, 김정희 (2017). 보육교사의 인성,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 영유아권리존중실행의 구조적 관계분석. 열린유아교육학회, 22(6),

73-93.

- 이유미, 안지혜 (2014).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행간 차이 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 연구, 8(4), 239-259.
- 이유정, 정연아 (2020). 만 4-5세 버들피리반 유아들의 참여권 존중에 관한 실행과 그 의미.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3), 29-60.
- 이윤미 (2002). 집단구성의 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전략 차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하 (2017).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1995). 유아 교사론. 서울: 양서원.
- 이재연 (1996). 아동권리 보장과 보호. 정신건강연구, 15, 46-54
- 이진화 (2014). 보육교사의 교육신념과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2006). 유아교육기관의 혼합연령집단 구성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2018).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 (2017). 어린이집 교사의 자질과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6). 아동의 참여권에 관한 아동과 부모의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이정원 (2017).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보육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1), 332-339.
- 임재택 (1992). 유치원 운영관리. 서울: 창지사.
- 임희준 (2011). 혼합 연령 학급의 동극 활동 과정에 나타난 만 4, 5세 유

- 아의 친사회적 행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정 (2020).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아동권리인식이 아동권리존중보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협, 오정수(2000).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지현, 이완성 (2011). 유아 어머니의 아동권리존중 실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지, 15(3), 391-407.
- 전현희, 이보영 (2019). 보육교사의 자기성찰지능이 영유아권리 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문성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9(3), 47-56.
- 정동재, 김진욱 (2021). 영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 영유아권리존중보육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아동과 권리, 25(2), 187-204.
- 정미라 (2003). 한국과 일본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유아인권교육의 내용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7(4), 291-318.
- 정미라, 홍용희, 엄정애, 이순영 (2000). 유치원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0(1), 59-80.
- 정미라, 홍용희, 엄정애, 이순영 (2004). 유아를 위한 종일제 프로그램의 운영. 서울: 양서원.
- 정선아 (200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 프로그래밍. 한국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정선영 (2017). 영유아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과 훈육 사이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우란 (2021). 4, 5세 혼합연령의 생태놀이활동이 혼합연령 유아간 상호작용 및 5세 유아의 리더십 향상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희 (2009). 공립유치원 단일학급 교사의 교직생활이야기. 한국교원대

-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현 (2004).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수 (1991). 망국 직후의 신한촌과 한민학교 연구. 한국교육사학, 13(1), 253-309.
- 정혜영, 구은미 (2016). 보육교사의 영유아권리존중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아동과 권리, 20(2), 199-221.
- 조재성 (2019). 심층 면담 가이드 개발에 관한 방법적 탐구. 질적탐구, 5(1), 29-52.
- 지성애 (2011). 영유아 권익 우선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영유아보육법제정 20년 영유아권익 신장을 위한 보육의 질적 성장과 전망.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지해숙 (2022). 보육교사의 영유아권리존중과 영유아학대인식 직무수행에 미치는 관계.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다래 (2016). 보육교사 대상 서울시 훈육안내서 현장적용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승주 (2015). 혼합연령학급에서의 갈등 개선에 관한 실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혜정, 서영숙(2010). 영아반 보육실습 체험에 대한 의미. 한국보육지원학회, 6(1), 177-199.
- 최경애, 오미경(2000). 어린이집 교사의 교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2, 219-236
- 최은혜 (2017).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및 어려움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서울: 통계청.

- 한국보육진흥원 (2021). 보육교사자격기준 변경안내.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유아교육학회 (1996). 유아교육백서. 서울: 한국유아교육학회.
- 한국유아교육학회 (2009). 유아교육학사전(용어편). 서울:한국사전연구사.
- 한금희 (1997). 단일연령집단 놀이와 혼합연령집단 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문장 특성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숙, 홍은주(1998).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 실현, 아동권리연구, 2(2). 39-50
- 한수희 (2019). 보육교사의 아동인권의식이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인권감수성의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31(1), 98-121
- 홍금주 (2003). 단일연령반과 혼합연령반 유아의 언어 및 사회적 능력의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수연 (1995). 혼합 연령 집단과 단일연령 집단에서 유아의 사회적 행동 유형 차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효의 (2017).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 실행수준, 교사민감성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인애, 봉진영, 권경숙 (2017). 권리준중보육실행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어려움과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2), 127-149.
- Amos. H. J. (2019). 교육 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진영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2년 출판)
- Brody, G. H., & Shaffer, D. O.(1982). Contributions of parents and peers to children's moral socialization. *Developmental Review*,

2, 31-75.

- D. R. Lee. (2016). Analysis on perception gap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regarding respect for young children's right during child care center's and on teachers' conflict.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 Elkind, D. (1988). Multi-age grouping. *Young Children*, 43(4), 19-31.
- Freedman, P. (1982). A comparison of multi-age and homogeneous age group in early childhood centers.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4, 193-210.
- Katz, L. G., Evangelous, D., & Hartman, J. (1990). The case for mixed-age grouping in early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Leavitt, R. L. (1994). Power and emotion in infant-toddler day care. NY: University of New York.
- Seidman, I. (2012).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NY: Teachers College Press.
- Vygotsky, L.S. (1978). Mind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mental process. *Cambridge*, MA: Harberd Univercity Press.

# ABSTRACT

## Efforts and Difficulti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Mixed-age Classes in Providing Childcare Based on Children's Rights

Hye Yeon Park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childcare rights and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childcare teachers of mixed-age classes. It seeks to find the direction of practice in respecting rights for mixed-age classes and provides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mixed-age class.

The research questions establish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hat do mixed-age class teachers think about the meaning and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in child care?
2. What are the difficulties that mixed-age class teachers experience in

protecting children's rights for their students?

In order to collect data for this study,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10 childcare teachers in mixed-age classes from May 18 to October 13, 2021. The researcher transcribed and analyzed the interviews and collected additional data points such as interview notes, journals of researchers and participants, and daycare center documents.. In addi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ata, one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rt and two research participants were shown data categorizing in-depth interviews and asked to review the research conten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blem as follows:

First, mixed-age class teachers believe that the rights pertaining to childcare should be focused on the right to survival,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of infants. Based on this perception, mixed-age class teachers made efforts in various ways to ensure that infants' rights to survive, participate, and develop were protected. Mixed-age class teachers recognized that active protection and practice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infants are necessary to guarantee a child's right to survive. To this end, mixed-age class teachers operated physical activity hours with consider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mixed-age classes, and operated lunch,snack, and nap times to reflect the individual needs of students.

Second, mixed-age class teachers recognized that in order to guarantee infants the right to participate, infants need to be able to express their opinions freely at daycare centers and participate in daily tasks autonomously. To this end, teachers voluntarily determined their seats and work hours to provide an environment in which infants' opinions are reflected by checking situations and places where infants were restricted from participating. However,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mixed-age classes, teachers were forced to concede to infants

of older ages, or did not accept the opinions of infants of lower ages during conversations. Therefore, mixed-age class teachers felt the need to strengthen their competency so that an environment in which all infants' emotions and opinions were respected equally could be created.

Thirdly,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development for infants, mixed-age class teachers recognized that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through play and education suitable for the level of infants. To this end, mixed-age teachers played the role of supporters who could encourage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ages to help each other develop, plan games and activitie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level and ability of each age, and provide teaching aids to protect infant development rights. Teachers set and operated a common goal recognized by all age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mixed-age classes when guiding children's basic lifestyle, but because of the large developmental differences between infants, a more individualized set of guidelines are requir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mixed-age class teachers in the practice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it was found that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mainly during the childcare process.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practicing the right to survive for infants were mainly related to the needs of parents. Teacher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running meals and snacks for healthy growth of infants due to parents' demand that infants did not need nap time, or that individual diets needed to be provided according to an infant's eating habits. Therefore, teachers needed the overall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f parents in order to guarantee an infant's right to survive was protected in a mixed-age classroom setting.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practicing the right to participate for infants, mixed-age teachers experienced difficulties due to the requirements of other physical activities, the tradition and atmosphere of daycare centers, and special

activities that did not reflect children's opinions. Accordingly, mixed-age class teachers said that there is a need to prepare an institutional atmosphere and environment in which infants' opinions can be actively reflected.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protecting the right to development for infants, mixed-age teachers encountered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preparation time, performing other tasks at the daycare centers outside of childcare, and general lack of knowledge about mixed-age education. In order to practice high-quality child care with regards to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mixed-age classes, teachers hoped to be provided with guidelines and materials for childcare activities and education on the teaching methods required of mixed-age development.

## 부 록

### <부록 1> 연구 설명서 및 연구 참여 동의서

#### 연구 설명서

##### 혼합연령반 교사가 인식하는 권리존중보육과 실천을 위한 노력 및 어려움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지도교수: 배지희

연구자: 박혜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박혜연입니다. 본 연구는 혼합연령반 교사들이 권리존중보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읽어보신 후, 본 연구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은 직접 대면하거나, 대면 면담이 어려운 경우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면담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면담 소요 시간은 대략 40~60분 정도이며, 총 2회의 면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의견과 경험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면담 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을 하고자 합니다. 면담 이후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전화를 통해 1~2회 정도 면담이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중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연구 참여를 중지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면담 자료를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연구 참여 도중에 중지하시는 경우에도 선생님께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연구를 위해 3년간 보관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됩니다. 선생님께서 면담하신 내용이 본 연구의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면담에 참여한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근무하시는 기관 및 선생님의 성함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           은(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읽고 모든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 명:

날 짜:

연락처:

이메일: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1. 성함 :
  
2. 선생님 현재 나이 :
  
3. 학력 및 전공 :
  
4. 총 경력 :
  
5. 혼합연령반 담당 경력 :
  
6. 기관 유형 :
  
7. 현재 담당반 연령 :
  
8. 혼합연령반 담당 연령 :